



# 時計塔

## SIGETOP



2019년 1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6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鄭均熙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 SNUCMAA OF NA

# 36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20 (Wed) ~ 24 (Sun), 2019

Pacific Palms Resort at City of Industry, California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제 36차 학술대회가 훌쩍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아직 Registration을 안 보내신 동문은 서둘러 보내주시고,  
호텔예약도 2월 말에 마감이 되므로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방면으로 유익하고 다채로운 Non CME program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젊은 동문들의 참여로 알찬 Scientific program이 준비가 되고,  
여기에는 한국 임원과 교수진의 참여가 있는 알찬 CME program이 준비가 됩니다.  
많은 동기들의 동기 모임을 이 번 학술대회장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프와 post-convention tour의 참여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회장 정 균 희(72)

### GENERAL PROGRAM

- March 20, 2019 (Wednesday)**  
9:00pm-3:30pm Pacific Palms Resort, Babe course (Tee time: 9 am)
- March 21, 2019 (Thursday)**  
9:00pm-3:30pm Pacific Palms Resort, Ike course (Tee time: 9 am)  
4:00pm-5:30pm Registration at Main Lobby  
4:00pm-5:00pm 2nd Board of Directors Meeting, Cherry Hill room
- March 22, 2019 (Friday)**  
6:30am-8:30am Breakfast, Cima restaurant  
8:00am-6:00pm Registration at Main Lobby  
9:00am-12:00noon Non CME, Majestic CD room  
12:00noon-1:00pm Lunch, Majestic I room  
1:10pm-5:00pm Non CME, Majestic CD room  
6:30pm-10:30pm Banquet, Colonial AB room
- March 23, 2019 (Saturday)**  
6:30am-8:30am Breakfast, Cima restaurant  
8:00am-6:00pm Registration at Main Lobby  
7:50am-12:00noon Scientific Session, Majestic I room  
9:00am- 2:00noon Non CME, Majestic CD room  
12:00noon-1:00pm Lunch, outside of Majestic I and Majestic CD room  
1:00pm-5:30pm CME Scientific Session, Majestic I room  
1:00pm-4:00pm Non CME, Majestic CD room  
5:00pm-6:00pm Reception, Majestic CD room  
6:30pm-10:30pm Grand Banquet, Colonial AB room
- March 24, 2019 (Sunday)**  
6:30am-8:30am Breakfast, Cima restaurant  
8:00am-12:00noon Registration at Main Lobby  
7:50am-12:00noon CME scientific Session, Majestic I room  
12:00noon-1:00pm Lunch, Majestic CD room  
1:00pm- 3:00pm CME Scientific Session, Majestic I room  
12noon Post Convention Tour(Lunch in bus)

### NON-CME SCHEDULE

- March 22 (Friday) Moderator: 김영애**  
9:00am-9:50am 나두섭(73) 사진에 관한 최신 정보  
10:00am-10:50am 이원택(71) 역대 대통령들의 정신분석  
11:00am-11:30am 서운석(68) 시계탑과 글쓰기  
11:30am-11:55am 이성길(71) 마리카나의 근래상황  
12:00noon-1:00pm 점심  
1:00pm-2:50pm 윤승준 핸드폰  
3:00pm-3:50pm 온기철(71) 청과 조선의 멸망
- March 23(Saturday) Moderator: 김영애**  
9:00am-9:50am 최도빈 표암 강세황의 삶으로 본 조선 후기 회화  
10:00am-10:50am 김명원(68) 'Picasso' Inspiration  
11:00am -11:55am 안우성(76) 양로 복지 시설의 실태  
12:00noon-1:00pm 점심  
1:00pm-1:50pm 손영진 수석 (壽石)  
2:00pm-2:50pm 김재권 세상을 움직이는 4가지 절대 법칙  
3:00pm-3:50pm 온기철(71) 일제 강점기의 중국과 한국, 해방정국

### 36차 학술대회 호텔예약 안내

Pacific Palms Resort Hotel 예약은  
전화 (800) 524-4557 혹은

<https://www.pacificpalmsresort.com/snucmaa-reservation-form>

으로 on-line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장 정균희(72)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이제 무술년이 어느덧 지나고 기해년을 맞았습니다. 황금 돼지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먼저 기원합니다.  
 서울의대를 동창인 것만도 자람이며 영광인데, 제가 이번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장을 맡게 된 것을 더 더욱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UCLA를 retire 하고는 변변한 명함도 없었는데, 이제 professor에서 president로 승진한 명함을 간직하고 다니는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 둘이서 한국여행을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택시를 타고서 운전기사과 나누던 대화 중에 아버지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산다는 말을 했더니, 그 기사가 "서울의대를 나왔다니 가까운 사람이 한국에 계셨어야 하는데, 미국에 사시는구나"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서울의대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야?"고 묻기에 그 때도 아들에게 proudly "Yes" 라고 답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KAL 기를 타고 모국 왕복 시에, 스튜어디스가 어찌 알았는지, 내게 "회장님"이란 호칭을 쓰는 게 인상적 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던 때 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proud 했습니다. 실은 서울의대 동창회장 이란 뜻이 아니라, 호칭에 inflation이 되어서 사장이 회장으로 변했지만, 제 눈에 안경이라고, 이 경우는 "제 귀에 보청기"라 썼지요. 제 맘엔 단순히 "회장"이란 단어 보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장"이란 직책이 proud 했습니다.

회장 타령은 그만하고, 이제부터 본문을 말씀드리자면 오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6차 학술대회, pre-convention golf(3월 20-21일) 그리고 post convention 여행(24-28일) 입니다. 모교에서 학장, 병



암울했던 2018년을 딛고 올라선 황금 돼지 - 김명원

원장, 동창회장이 모두 참여하시고, 두산그룹 박용현 선배님도 오시기로 약속했습니다. Scientific Program은 이선규(89)동문이, Non-CME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Mrs. 김성환(71)이 수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창회를 이끌어 오신 여러 선배 회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회기에도 전회장님들 못지않게 멋진,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동창회 fund도 더 풍성하게 모으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무를 맡아주신 최광희(76)동문, 남가주 서울의대 동창회장과 미주서울의대 동창회 총무를 겸임해주시는 안우성(76)동문, 시계탑 편집장 서윤석(68)선생님, Charity Chair 최영자(62)선생님, 장학기금 chair 이선희 선생님, 장학기금을 쾌척 해주신 김태웅(62) 선생님, convention donation에 적극 후원해 주시는 서울 메디컬 그룹에 차민영 동문 그리고 만수무강하셔야 할 이명희 선생님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 페이지를 다 할애해도 부족하겠지만, 이번 convention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 동창회는 모교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단체인데, 동창회장 추천 서면 입학도 가능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볼만 합니다. 물론 모국 입학제도와 미국의 입학제도가 차이가 있지만, 한마디로 동창회의 모교에 대한 영향력은 동창회가 모교에 막강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힘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입니다. 장학금과 연구기금으로 후원하고, 후배들의 사회진출에 다리를 놓아주고,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일 등등 동창회가 모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 지대합니다. 우리 미주동창회도 모교를 위한 그런 역량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듣기에 서울의대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정부지원을 받고도 수백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주 동창회원들이 이런 지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 내에서도 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Disease Task Force 운동이 미주서울의대 동창회에서 수년간 conceive 하기로 했습니다. 이 task force에는 한승진 전회장이 적극 후원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많은 동문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젊은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는 Green Project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풍림화산(風林火山)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화 시에는 수풀속의 바람처럼 잔잔히 있던 군대가 위기에는 화산처럼 폭발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의 풍림(風林)의 시절을 감사드리며, 또 화산처럼 폭발하는 힘으로 동창회와 모교, 그리고 의료계에 봉사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동문동생 및 시부소식

### 최종진 (59) 동문 사랑 나눔 콘서트 참여



지난 2018년 12월 13일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된 제 8회 Bliss 합주회, 사랑 나눔 콘서트에 최종진 동문께서 지난해에 이어 엘토 색소폰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합주회와 성악, 무용, 여러 장르의 음악으로 꾸며진 훌륭한 무대에 가장 연장자로 참여한 최동문께서는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 국영순(소프라노) 메시아 공연 지휘

국영순(소프라노, 이명희 66, 동문 부인)씨가 지휘하는 웨체스터 한인합창단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지난해 12월 8일 뉴욕주 스킨스데일 히치코크 장로교회에서 열렸다. 16번째 공연을 갖는 웨체스터 한인합창단은 2010년 봄 창단한 이래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연주로 첫 선을 보이고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봄, 겨울 정기연주회와 자선연주회를 열어왔다.

### 이원택(71) 동문 미주 펜문학상 시부문 수상

이원택(71) 동문(시인)께서 지난 2018년 11월 30일에 LA(용수산)에서 열린 제 16회 미주 펜문학상 시상식에서 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 1958년도 (12회) 졸업 60주년기념 Class Reunion

1958년도 졸업(12회) 동문들의 졸업 60주년 기념 만찬이 지난 2018년 9월 15일 서울 벨레니움 힐튼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Class Reunion은 많은 동기들이 부부 동반으로 성대히 거행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김해암, 신현철, 이종용, 이만택 동문 부부가 참가 하였습니다.

기념 만찬에 신찬수 의대학장님과 흥정용 동창회 회장님이 축하 화환을 보내 주시었습니다. 특히 동창회에서는 참가 동기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동창회 직원이 나와서 안내 및 접수,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는 2023년 졸업 65주년과 2028년 졸업 70주년 기념 행사도 모두 다 건강하게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그 행사의 준비위원장에 김동집 박사를 선출 하였습니다. - 이만택 보고

##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이상하(51) 동문 별세

은퇴후 뉴저지주 포트리아에서 거주하시던 이상하(Interanl Medicine 전공의) 동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 이종현(61) 동문 별세

한국에서 지난 2월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시어 거주하시던 이종현 동문께서 12월 24일 별세하시어 12월 29일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 정일환(63) 동문 별세

지난 12월 26일 노스 칼로라이나에 거주하시던 정일환(Urology 전공의) 동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Memorial Service는 2019년 봄에 할 것이라는 유족들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 1971년도 졸업, 캐나다 동기 여행 보고

1971년도 졸업 서울의대동문들이 성공적으로 Canada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번여행에서는 10월 중순에 Regal Princess를 이용하여 뉴욕을 떠나서 New England와 Halifax를 왕복하였는데 지난 봄 Costa Rica 다음으로 두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참가한 동문은 강유구, 강태수, 김성환, 김일영, 장문석, 조병선, 이성길, 이원택, 이창우 등 이었으며 김유식 동문은 뜻밖의 모친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서 저희들은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New Port, Rhode Island에서는 18-19 세기의 미국 산업을 개발한 선주자들의 휴가 별장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별장들은 프랑스의 궁전에 비하여 그에 못하지 않아 유럽의 제국주의가 미국의 자본주의로 연결된다고 느꼈습니다. Boston에서는 역사적인 길들을 걸었고 St. Johns에서는 바다가재와 해산물 Chowder를 즐겼습니다. Halifax에서는 전통 깊은 해산물 음식점에서 점심을 하였는데 밖에서는 첫 눈보라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오신 동문들은 한동안 못 보던 눈을 반기셨습니다. 제일 즐거웠던 일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였으며 모든 동문들이 우리가 자주 만날수록 더욱 젊어 보인다는 사실에 동참하였습니다.

저희는 Wedding Chapel에서 상식적인 강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강유구, 김성환, 이창우 동문은 심폐소생술을 강의하였고 조병선 동문은 Smart Phone (Personal Mobile Computer)에 대하여 재미있게 설명하였고, 이원택 동문은 이조 시대 정치적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행은 동문들의 유대를 깊이 하면서 서로 웃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2019년 동문 여행은 김성환, 김일영 동문들이 추진하고 있으니 좋은 여행 목적지가 있으면 김성환 동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을 끝까지 주선하신 김영애(김성환 동문의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30/2018 - 강유구 보고



# 2018-2019 제1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19년 1월 12일 3시(동부시간), 낮 12시 (서부시간)  
 장소: 동부 (NY 지역),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J  
 이희경(61) 한기현(63) 추재욱(63) 권정덕(64) 허선행(64) 홍선경(64) 이명희(66)  
 최순채(66) 서윤석(68) 서 량(69) 한민우(75) 한승신(76) 김정아(76) 이선희(81)  
 남명호(81) 오무연(89) 강민중(91) 박종철(99) 백승석(fund manager)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  
 김태웅(63) 김의신(66) 이건일(68) 김성환(71) 김영애(71) 김일영(71) 이원택(71)  
 정균희(72) 고용규(73) 전경배(75) 안우성(76) 최광희(76)



Proxy:  
 김웅식(55) 임종식(57) 이만택(58) 채규철(59) 최종진(59) 최준희(64) 신용계(66)  
 최영자(66) 주광국(68) 임용규(69) 강창홍(71) 조세진(71) 이성길(71) 오용호(72)  
 박진섭(73) 김동훈(77) 백승원(79) 차민영(82) 심인보(83) 서귀숙(84) 이영인(86)  
 이선규(89) 이도은(99) 송경민(09) 허원제(02)

1. 동, 서부 참석 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정균희 회장이 대의원회 개회 선언함.

2. 지난 2017-2018, 제1차 이사회 회의의 초록에 대하여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3. Agenda로 AASCDTF에 대한 의논이 있었음.  
 지난 회의 이후 AASCDTF가 한 종류의 donation category로 donation을 모으고 있으며, 모이는 donation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광고비 정도의 지원을 동창회에서 한다는 얘기와 뒤에 더 상세 develop된 것을 의논하자고 함.

4. 재무보고: 최광희(76)  
 - 2019년 1월 8일 기준으로 Income이 아래와 같이 현 회기에 들어 왔음을 보고함. 동창회비 \$46,470 / 35차 학술대회 Convention donation \$17,500 / Scholarship donation \$4,670 / Green Project donation \$2,950 / Charity donation \$1,975 / General donation \$9,840 / AASCDTF donation \$20,000

참고로 지난 회기에서 넘어온 Green Project와 Scholarship, Charity fund에서 지난 회기에서 미처 마무리가 안 된 것이 현 회기에서 지불이 된 것을 제외하여 현 회기의 입금 된 액수와 합한 내용이 보고가 됨.

잔고는 아래와 같음(지난 회기에서 넘어온 fund + 현 회기 입금 after지불)  
 Green Project \$9,090.40, / Scholarship \$9,366.70 / Charity \$5,080

5. Fund Management 보고: 이명희(66) chair와 존 백 fund manager-  
 - 1차 대의원회(1/12/2019)에서 결정한 General fund에서 Scholarship fund로 \$10,000을 이체하는 것과 2018년 장학금 지급액 \$20,000을 초과하여 General fund로 불입된 \$2,961(\$5,703.30 x 4 quarters + 148.06(추가이자 정산액) - \$20,000)을 합하여 \$12,961을 정균희 회기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승인과 재청이 있었음.

- Fund 투자된 것은 10년간 매년 이자가 위와 같이 guarantee 되고, 그 이후에도 이명희(66) 위원장의 lifetime 보장이 되는 것으로 되며, 매 회기 재 투자가 되는 \$10,000 등은 별도 투자관리가 되고 있음도 설명함.

6. Scholarship 보고: 이선희(81) chair, 강민중(91) Co-chair.  
 - 한국 본교로 가는 장학금은 \$2,000씩 5명이 미주에서, 서울 본교에서 \$2,000씩 match 해주어 장학생들은 각 \$4,000로 수여 받고 있고, 여름연수로 오던 그린 프로젝트 장학생들이 2019년부터는 1월에 연수 나오게 되고, 또한 올 해에는 동부에 위치한 병원에 연수 나온 장학생이 없는 등의 이유로 연수 학생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모교의 학생행정 담당 팀과 더욱 긴밀히 상의하여 연수 학생들과의 만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김태웅(63) 장학금이 원래 pledge하신 것이 2019년에 \$10,000이 마지막이 되는 것인데, 이를 지난 이사회에서 앞으로 5년을 더 연장하신다고 하셨으나, 한국으로 가는 김태웅 장학금을 없애는 것으로 서울과 의논이 되어서, 미주교포 자녀에게 가는 김태웅 장학금을 \$2,500씩 2명 주던 것을 \$3,000씩 2명으로 하여 앞으로 10년간을 2019년부터 \$6,000씩 김태웅(63)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새로 바뀌게 됨을 이 번 1차 대의원회에서 확인이 되었음.

또한 미주교포자녀에게 주는 SNUCMAA 장학금이 매년 \$2,000으로 5명까지 선정되어 주어오던 것을 올 해부터 \$2,500으로 상향 조정하여 4명까지 주는 것으로 제의한 것이 동의와 재청을 받았음.

- 서울예과를 나오시고 미국유학을 하시어 오랫동안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전문의를 하신 정병욱 선생님이 지난해 돌아가셨는데 정병욱 선생님의 미망인과 아드님께서 서울의대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해 매년 \$10,000씩을 donation 하 시겠다는 의사를 알려왔음. 이에 그 취지를 잘 살리는 방법을 몇 번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병욱 선생님의 아드님께서 결정하셨는데, Green Project member들의 매년 학술대회 행사에 speaker로 참여하는 비용으로 3년간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음.

매 학술대회에 참여 하는 Green Project speaker 숫자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으로 미주동창회의 젊은 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력이 정병욱 fund가 들어옴으로 힘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임원들과 개별 선생님들의 Green Project 지원 donation을 중요함을 다시 상기하였음.

7. Advisory & Exchange committee 서면보고: 이만택(58) 위원장.  
 미주재단의 총 모금액이 2018년 11 million으로. 의대에서 김순균(66) 동문의 70만달러를 정신과 교육연구기금과 분당병원 EMR 연구로 기증 약정하여, 2018년 20만 달러 기부로 시작하였음. 그 외에도 김용재, 김기택, 이만택과 이안나 장학금의 액수와 지원소요 세부내용과 유인경 교수기금과 김의신 핵의학 교육기금에 대한 지불내용도 보고 됨.

8. Publication Committee 보고: 서윤석(68) 위원장  
 - 매 시계탑이 현재 원고가 다양한 분야의 원고와 그림, 사진 작품을 여러 동문이 해 주셔서 수준조로운 진행이 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이 있었음.

- 지난 2014회기에 발행이 된 시계탑 40주년 기념문집 발행에 이어 5년이 된 2019년 금년 내로 7월호까지 게재된 지난 5년간의 원고로 45주년 기념문집 발행(제 6집)을 예정하고 있음. 동문과 내외분의 책을 소개하는 것도 허용이 됨. 문집에 실을 작품은 1명이 2편씩으로 인쇄비, 소요경비, 운송비를 감안하여 비용 참여액을 결정할 것임.

- 노용면, 김병석,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김명원, 서량, 서인석, 나두섭, 이선희, 서귀숙, 박은경 등과 유니온 인쇄소 황창근 사장과 사무장, Jamie Kim의 노고에 감사함. 특히 바쁜 일정에도 젊은 세대의 대답시리즈를 마련하는 박은경(2000)동문에게 감사함.

- 선배님과 10문 10답 대답 시리즈 또한 호평을 얻고 있고, 독자들의 요청에 호응하여 좀 더 질문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희망적인 성공담, 흐뭇한 자녀들의 이야기 등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Website을 더욱 많이 이용하시어 시계탑 신문이 나오기 이전에도 언제나 새로 오른 글을 Website에서 보실 수 있고, 예전 것 또한 열람이 가능하므로 snucmaaus.org을 더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함.

9. Charity Committee 서면보고: 최영자(66) 위원장  
 현재 지원을 하는 NYCOCO(지체장애아동 지원단체)외에 더욱 많은 local Charity activity를 위하여 fund 조성을 구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학술대회장에 제약회사 등의 booth 참여도 fund를 모을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함.

이번 36차 학술대회 이전에 남가주의 안우성(76) 남가주 chapter president의 도움으로 그 지역 제약회사의 참여 요청을 부탁하였음. 여기에는 우리의 숫자가 크지 않고 고령화 된 점으로 현실에 반영이 힘이 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많은 동문의 Charity donation을 요망함.

9. Nominating Committee 보고: 한승신(76) 전임회장  
 2019-2020 차기회장 후보를 여러 각도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원컨대 워싱턴 DC 지역 혹은 뉴욕 지역의 동문으로 탐색 중이고, 졸업년도는 1961년에서 1979년으로 하되 주로 1966년에서 1975년을 대상으로 찾고 있는 중임.

10. AASCDTF 보고: 한승신(76) 위원장  
 - 지난 현철수 회장이 1차 AASCDTF forum(2018년 10월, 뉴욕)에서 새회장 선정 및 3 committee 결성이 됨. 회장 황주하(prof. in Medicine, Stanford University) / Education committee chair: 현철수 / Research committee chair: 박혜성(2006), 이은정 / Advocacy committee chair: 남명호(81)가 선정됨.

- 현재 서울의대미주동창회에서 별개의 category로 donation을 모으고 있으며, 이 재정관리는 위의 회장과 committee chairman으로 넘겨질 것 임.

11. 마지막으로 정균희 회장으로부터 36차 학술대회 안내가 있었으며 모든 임원의 참여와 각 동기의 참여를 촉구함.

12. 36차 학술대회(3월 20일에서 24일)에 제 2차 이사회가 3월 21일(목)에 있으며, 그 다음 회의인 제 2차 대의원회는 일정이 6월 8일(토)로 예정 되었음.

12. 동, 서부 모두 회의를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던 후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고 서울에서 도착을 한 서울동창회 달려를 나누어 가지며 3월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침.

## 시계탑 원고에 대한 안내의 말씀

우리의 시계탑에 글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고 내용은 지부소식, 수필, 산문, 기행문, 독후감, 시, 사진작품,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 자랑, 경험담,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 등 모두 환영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종교적, 정치적인 사항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원고는 길이가 1면을 넘지 않는 분량입니다. 만일에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원고를 돌려보내거나 편집회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우리 동창회 website로 보내질 것입니다. 특히 사진은 꼭 필요한 몇 장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5년 역사를 가진 시계탑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원 여러분들의 눈이요 귀요 입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보물입니다. 이 귀중한 시계탑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안내말씀을 따라 주시면 편집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학년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 원고는 email로 혹은 육필의 경우는  
 \*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n Seok Seo, M.D.  
 15727 Rothschild Court, Haymarket, VA 20169  
 Tel: 419-234-4154  
 E-mail: younseokseo2004@gmail.com 혹은 snucmma@yahoo.com

# 정병욱 Memorial Fund

**Award:** Dr. & Mrs. B. U. Chung Fund, a Donor Advised Fund of the Boston Foundation  
**Purpose:** The Green Project - to promote new and next generation physician participation.

The Association is delighted to announce a new award granted by the Chung family to promote the Green Project activity. This was based on the communications between the chair of the Scholarship committee (SC Lee, '81, approv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and the Chung family represented by Dr. Young Chung, son of late Dr. Byong Uk and Mrs. Myung Soon Chung. Based on the reports in the Sigetop newsletter (see the Green Project White Paper published in English in issues 2015-10-15 and 2016-1-25 summarizing the formidable cultural and financial barriers in bringing young individuals to our association <http://snucmaaus.org/newsletter/>), the family decided on a Green Project (GP) grant fund as outlined below.

The GP fund is essentially a travel fund for the young alumni to attend the SNUCMAA-US annual convention. The GP members (those who graduated within the past 20 years) organize scientific and other networking and career development presentations with the support of senior members and their convention-related costs (registration, transportation, lodging and food) are reimbursed.

This is a 3-year installment grant (\$10,000 each) with payments beginning in October 2018 and the final payment in October 2020. Based on the report (see below) in about 30 months from the first check, the family will consider a new recommendation for an additional 2 years of funding. The report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metrics.

1. Number of GP alumni participating in the annual convention broken down for years 2018 (prior to grant), 2019, 2020, 2021 (if taken place) conventions
    - 1) pre-training 2) In-training 3) Post-training
  2. Number of first time GP attendees in each of those categories
  3. How much total GP designated donations in addition to this grant is donated in each of the years 2018-2021 by:
    - 1) The current and past Board members (totals to protect confidentiality)
    - 2) GP Alumni or current GP attendees (some of the In-training and Post-training): just the number of them that donate, not the total amount
  4. Lastly some of the grant money can go to a GP social function as mentioned in the white paper, the amount can be decided upon by the GP committee
- Essentially, the Chung fund is designed to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of the young alumni in the annual convention and also donation by all members to the Green Project. We welcome the news! - Reported by Sunhee C Lee ('81)

정병욱 선배님께서는 1934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018년 4월 28일에 소천 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경기고등 학교를 졸업하신 후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수료하시고 도미하셔서 Lewis and Clark College in Portland, Oregon에서 Undergraduate Study 후에 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에서 MD degree로 졸업하시고(1961) Neurosurgery Residency는 Northwestern University 에서 마치시고 1967년에 Private Neurosurgery Practice에 40년 종사하신 후 은퇴 하셨습니다. Portland에 undergraduate study 때 성악 전공하신 우명순 여사님과 결혼하셔서 슬하에 2남 2녀와 14명의 손자 손녀를 두셨습니다. 정병욱 선배님을 기리는 Memorial Service를 2018년 8월 25일에 아드님 Young Chung 님에서 모든 가족과 친지 선후배 동문님들 200여명이 모여 목사님 모시고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여기에 Local Newspaper에 실린 Obituary를 올립니다. -임현재 (의대 1965졸업)



Dr. Chung graduated from Kyunggi High School in 1953 and did his pre-medic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recognized by his professors and recommended for a scholarship to study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While majoring in chemistry at Lewis and Clark College in Portland, Oregon, he met the love of his life, Myung Soon Woo, who was there earning her Master's degree in vocal performance.

He obtained his Doctor of Medicine (M.D.) degree from 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Portland, Oregon, in 1961 and completed his General Surgery training and Neurosurgery Residency at Northwestern University (Feinberg School of Medicine) in Evanston and Chicago, Illinois.

In 1967, Dr. Chung joined a private neurosurgery practice in Elgin, Illinois. He grew the practice, joining the staffs of several hospitals in Elgin and the northwest suburbs, and serving and saving thousands of lives for over 40 years. In 1993, his son, Young, also a neurosurgeon, joined his practice.

Dr. Chung's passion was teaching. He focused on volunteer trips to many countries, teaching and performing neurosurgery.

He and his wife, Myung Soon, lovingly raised Mimi, Young, Julia and Joseph (Joe). He instilled in them respect for others, a strong work ethic, curiosity, a love of nature, music and sports, and above all, a sense of humor.

Dr. Chung was a natural born athlete, excelling in tennis and golf. After immigrating to the Pacific Northwest, he taught himself how to ski, ice-skate and water-ski. He also loved boating, scuba diving and fishing. He appreciated music of all genres and taught himself how to play the piano and harmonica. He loved to sing and dance; he and Myung Soon would rock the dance floor with everything from the "twist" to the "tango".

## 편집회 초록

2019년 1월 12일(토) 오후 2시 편집회가 뉴저지주 Fort Lee, Double Tree 호텔에서 열렸다.

참석한 사람은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서량, 이선희 편집위원들과 황창근 사장이다

금년 7월이면 자랑스러운 우리의 시계탑을 발간하기 시작한지(초대편집장 노용면) 45년이 되는 해이고, 1994년 시계탑 문집 제1집(이희경 22대 총동창회장, 허선행 편집장)이 발간된 후로 우리 동창회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매 5년마다 그 문집을 발행하고 있다. 이날 편집회



에서 2019년말까지 이 전통을 살려서 제 6집 시계탑 문집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 결정을 대의원회에도 발표했다.

원고 교정에 이어서 영문이 필요이상으로 혼용되어 들어온 원고는 가능한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만 영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오후 3시(동부시간)부터 계속되는 대의원회가 이어짐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다음 편집회는 2019년 4월 13일(토)에 있을 것임을 알리고 회의를 마쳤다. - 글: 편집인

## “吳元煥 兄이 갔구려”

지난해에 만났을 때에도 마음은 그 옛날과 다름없이 씩씩한 젊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감사했는데, 몸이 불편한데도 내 아우에게 자상한 친형 노릇을 잘 지켜줘서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었네. 그런 중에도 내가 언제 울지 궁금해 하고 옛 동기생들에게 갖는 그리움을 表現할 때가 언젠가 하고 있는데 다시 元煥 형 만나 懷抱를 풀기 전에 먼저 갔으니 그 안타까움은 그지없네.

뛰어난 두뇌를 가져 의과대학도 일찍 입학했고, 학교엘 같이 다닐 때도 항상 곧 바르고 學究에 열심히 정진하고, 졸업할 때도 優秀한 성적을 냈을 뿐 아니라 졸업한 후에도 학교의 그 좋은 자리를 다른 동기생에게 讓步하고 일찍 渡美하여 계획한 整形外科를 선택해서 동기 중에서도 일찍이 New England Medical School에서 教授職銜을 받아 우리의 자랑꺼리가 되었지. 한국에서도 뛰어난 先輩와 계속 연계를 갖고 三星病院이 세워졌을 때는 곧 초대받아 New England Medical School의 자리를 박차고 귀국하여 그 병원에 처음으로 整形外科를 創設하여 과를 이끌면서 後進을 길러 나간 공헌을 했지. 나중에 문제의 허리 때문에 苦痛을 받을 때도 그들 후배의 診察과 治療를 받지 않았는가? 삼성병원에서 停年退職할 때 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 定着 하였지. 다친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 그러면서도 곳곳이 쾌활하게 잘 지냈지. 학생때에도 술, 담배 하지도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였지만 한편 美食家로도 알려졌었지. 다른 사람이 찾을 수도 없는 칠면조 식사를 계절에 맞춰 친구들에게 맛을 보여 주곤 했지. 職場에서 받은 압력을 골프로 풀었고, 그러면서 결국 그 부문에도 一家見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 많은 재주를 지금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게 되었구려.

바쁘기도 한 까닭인지 家庭生活이 꼭 순탄하지만 않았지만도 賢母良妻인 現婦人과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 옆 사람들이 부러워 할 지경이었지. 그 아이들 셋과도 잘 지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가 됐었지. 그들의 설움은 어떻게 되는지? 現婦人의 忠節은 다른 사람들의 模範이 되었을 것인데.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샌디에고에 살면서 근처에 있는 동기와 잘 지내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하지 못한 兄 노릇을 내 아우에게 쏟아줬는데 이제 형을 잃은 내 아우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은퇴 후 동기들의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동기의 만년회장인 姜昌旭 형에게서 “돌아온 탕자” 라는 딱지를 받지 않았는가?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도 포기하고 鬪病하느라 하루하루가 힘들었어도 童心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먼저 떠난 친구들과 만나게 됐구려.

좀 더 자주 만나서 옛 이야기도 나눴으면 하지만 元煥 형은 이미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는 형과 지난 追憶을 더듬으며 형을 그리워하게 되었구려.

삼가 曠福을 비네. - 裕林 徐 休 烈 드림

## “정일환 형을 그리며”

형이 이렇게 훌쩍 가시고 나니 허황스럽기 그지없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1957년 문리대 의예과에 입학하면서 부터였지. 그 후 의예과 2년 분과 4년을 같이 지내며 겪었던 여러 가지 즐거웠던 일이며 어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몇 살 아래인 여동생을 데리고 자취를 하던 터라 세상 물정에도 우리보다 밝아서였던지 싸게 칠 수 있다는 당구장을 찾아 신촌에도 같이 갔든 일이며 아현동 언덕에 있던 형이 자취하던 집에라도 가는 날이면 대낮이건만 깜깜하기만 했던 방에서 형이 만들어 주곤 했던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기현, 남재 군과 함께 소주 한잔씩 나누며 즐겼던 일 등등 그 수많은 일들을 잊을 수 없구려...

당시 우리는 4.19와 5.16과 같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일들을 겪으면서도 1963년 봄 예정대로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웠나 싶었지. 우리는 졸업 후 미국행을 결심하고 ECFMG 시험을 치른 후 형은 육군에 나는 해군에 입대 했었지.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나는 1966년, 형은 1968년도에 5년 수련을 마치면 귀국 할 예정으로 시작한 미국 생활이 형은 Smokey Mountain에 있는 Sylva에서 Urologist로서 나는 Milwaukee, Wisconsin에서 Gastroenterologist로 반백년을 살아 왔구려...

우리는 3,000리도 넘는다고 하는 머나먼 거리를 두고 살면서도 가끔 미주 의 대동창회나 1963 class reunion을 기회 삼아 때로는 가깝기도 하고 때로는 멀기도 했던 여행을 하며 뒤늦게 배운 골프도 즐기며 우정을 나누었지 않았나...

그 많은 세월동안 나는 늘 일환이를 형으로 생각하며 단 한 번도 너 라고 불러 보지도 못했고 일환 형도 나를 동생쯤으로 여기는 듯 싶었네. 친 형이 없었던 나는 형을 부모 형제의 연으로 맺어진 형 이상으로 생각 했었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말년에 언어와 신체적 불편을 겪으며 살았어야 했던 형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 했었네... 그동안 Mrs. Chung의 보살핌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었던 일 형도 마음속 깊이 느끼며 떠났으리라 믿네.

이제 고통없이 편안하다고 하는 저세상에서 마음껏 말도 하고 마음껏 걸기도 하며 이승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빙그레 웃으며 지내고 있을 형을 생각하면서 형을 잃은 이 아픔을 달래보려고 하네...

이제 나 또한 이승의 날을 정리할 날이 멀지 않음을 알기에 나도 형이 가 있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지금 부터라도 노력 해 보겠네.

다시 한 번 Mrs. Chung과 두고 떠나신 가족 모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형이 있는 그곳의 삶이 평안 하시라고 빌어 보겠네...

2019년 1월 Milwaukee, Wisconsin에서 63년 졸업생 장세근

#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 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 분야는?
-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 들었던 때는?
-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 7. 다시 태어나신다면 의사가 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 하여 주세요?
- 10.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 고재경(60) 선배님

1. 미국에 처음 온 것은 1965년 7월 군복무를 3년 마치고 피부과 전문의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수중에 \$50만 들고, 비행기 표는 인턴하기로 계약된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Mt. Sinai Hospital에서 보내주었습니다.

2. 결혼은 중매와 연애 반반으로 하였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네브라스카주 Omaha에서 애를 키울 때가 행복하였지만 여러가지 행복은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요.

3. 의사가 된 동기는 의예과 입학시험에는 문리과목이 선택이 아니었기에 입학시험에 무난히 합격하였습니다. 전공으로는 우연히 피부과 가까워지고 학생시절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때는 피부과가 인기과목이 아니어서 쉽게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4. 미국에 와서도 다행히 미네소타 대학 병원에 피부과의 임상과 피부병의 피부병리학과 진균학에 대하여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6.25 사변 중에 살아남는 것 이었습니다.

6. 학창시절에 주말마다 시간이 나면 등산부 친구들과 암벽등반을 많이 한 것 이었습니다.

7.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의사가 되겠습니다.

8. 아이들을 기를 때에 저의 생각은 기초교육을 최선을 다해주고 그 후 대학부터는 아이들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9. 취미생활은 등산, 정구, 스키, 스케이트, 탁구, 골프를 많이 즐겼고 이제는 몸이 약해져서 걷는 운동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10. 시계탑 및 미주동창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잘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힘이 못되어 드려서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박형순(60) 선배님

1. 군복무 후 서울대학병원 정신과 Resident Program에 잠시 있다가 1965년 도미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허락한 50불과 아버님이 암시장에서 50불을 사서 100불을 소지했습니다.



2. 결혼 전에는 너무 수줍어서 여자와 사귀어본 일이 없었다가 도미 직전에 부모님의 권유로 짧은 시간에 상당수의 여자와 선을 본 중에 부모님이 저의 처를 제일 마땅하다고 여겨서 결정했습니다.

3.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제가 의사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호소를 잘 들어주는 것이 의사의 천직이며 책임입니다.

4. 대학시절에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 선택은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십 여년 정신과 개업을 마치고 6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5. 내 주름을 얻는데 평생이 걸렸으니 그 주름을 절대로 수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모습 그대로 둔다는 신념에 저는 얼굴에 무엇을 발라본적이 없습니다. 저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봉사활동으로 보답할 생각입니다. 건강을 돕는 운동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싶습니다. 피난 때에 아버님과 떨어져 있어서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아야 할 때가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6. 나는 축구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례행사였던 운동 경기 중에 축구시합에서 치과대학을 대항했

을때 제가 선제 골을 넣었지요.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지요.

7. 저의 고지식한 성격으로 보아서 의사가 된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8. 미국에서 나서 자라난 아이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요. 저는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취미를 살려주는데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 때 Best Cheerleader였고 작은 딸은 버지니아 지역 미인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고 아들은 고등학교때 Wrestling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때냈습니다. 레슬링은 신체단련과 정신적 집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지요.

9. 우리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육상경기 단거리 경주에(60, 200 & 400 meter) 저의 나이에 나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골프는 손에 대본 일이 없고 뛰는 운동에 전심,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제 나이에 정구 단식을 한 시간 이상 치지요. 지면이 허락되면 저의 딸의 직업과 성과를 특별기사로 소개합니다.

Metropolitan Opera Company가 2006년부터 일 년에 9-11개의 Opera를 Direct Live High Definition Simultaneous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오후 1시에 대형스크린으로 상영합니다. 영어번역이 큰 글자로 나와 이해하고 즐기게 하는 스크린에 매혹되지요. 현재 2000개 이상의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딸 Elena가 Supervising Producer로 이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흥미 있으신 분은 Metropera.org를 열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의 자녀들의 공부와 과외 활동을 정성껏 보살펴준 아내에게 감사사를 포함합니다.

## 강창욱(61) 선배님

1. 1965년 6월 29일 밤 열 두시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중에 \$5 남았습니다.



비행장을 빠져나오면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몰랐을 때 동행하며 말동무가 되었던 분이 아우의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2. 집사람과는 한국에서 동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약혼하고 본인이 미국에서 인턴을 마친 1966년 8월에 뉴욕 맨해튼 115가에 있는 역사적 한인감리교회에서 친구들 몇 사람의 주선으로 조출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미국의 시골서 살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많이 본 탓이었지요. 다행히도 정신과 연수에도 훌륭했던 코네티컷 뉴타운에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미국 생활을 만끽할 수가 있었고 친절한 이웃이 참 미국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3. 부모님의 뜻이었지요. 고등학교 답입은 제가 실력이 없다고 말렸지만 제가 고집 세워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 정신 의학 중에 어렵고 다들 싫어하는 연락 상담 (Liaison Consultation)을 전공했습니다. 다행히 거의 교과서에 쓰인 것 같이 이상적인 임상직책을 얻어 알찬 임상경력을 마음대로 쌓으며 즐겼습니다.

5. 저는 인간의 본능과 본 의무를 제대로 응하는 것, 즉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늘 어찌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다행이었구나 하는 생각과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늘 섞여 옵니다. 일남 이녀가 아홉의 손자들을 낳아 모두 잘 자랍니다. 고맙기만 합니다.

6. 본과 일학년 때 제가 결핵 림프샘염으로 학교를 쉬어야 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할 때였습니다. 일 년을 포기하려는데 재시험을 쳐보라는 권유가 있어 다행히 몸도 좀 낫은 것 같아 모든 과목에 응하여 모두 통과함으로써 일 년을 쉬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교육을 받으면서 장차 무엇을 전공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신과의 남명석 교수께서 정신과를 전공해보라고 하셔서 그 권유를 고맙게 받았습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권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7. 다시 의사가 되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의사에게 좋은 시대에 경험한 닳인지 모르겠습니다.

8. 자녀들의 희망과 고충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 부모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걸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앞세워 자녀들의 뜻을 막을 가능성이 크며 그들의 희망을 가로막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는 말에서 우리의 뜻이 반영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젊은 부모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9. 취미가 평생 바뀌었습니다. 미술, 전자, 음악, 골프 등으로부터 이제는 글 쓰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책 세 권 출판했습니다.

10. 한 대학의 단과대학 지부 동창회가 우리 시계탑처럼 훌륭한 신문물 계속 발간하고 해마다 학술대회 모임을 한다는 것은 기록이며 역사적이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후배의 미주이민이 줄어가기 때문에 약간 염려도 됩니다. 이보다 더 잘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 이재승(61) 선배님

1. 육군 군의관 3년 복무를 마치고 1965년 Land of opportunity인 미국에 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나라가 가난해서 수중에 \$50 지참, 하루 저녁 도중 숙박하고 나서 인턴 병원에 도착하니 수중에 \$23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되지요.



2. 부모님 중매로 1962년에 만나서 약혼 교제한지 1년이 지나서 결혼했습니다. 삼남매가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했을 때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약혼시절인 것 같습니다.

3. 저는 원래 말 주변도 없고 글 주변도 없어서 문과는 생각지도 않고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서울공대 기계과를 원했는데 부모님 명령(?)으로 의대를 지원 했었는데 미국에 와보니 힘은 들었지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정직과 봉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저는 Altoona Hospital, Pennsylvania에서 Intern을 마치고 Johns Hopkins Bay View Medical Center에서 Anesthesia Residency and Faculty를 거쳐 34년(1970~2004) 동안 이곳 Baltimore St. Agnes

Hospital Center에서 Attending Staff: 그중 마지막 19년(1985~2004)은 Chairman of Anesthesia Department로 근무중 2004년 Johns Hopkins Medical Institution Full Time Faculty으로 초대받아 13년 봉사하고 2017년에 은퇴했습니다.

연구분야는 마취과의 difficult airway management, medical acupuncture for pain management.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고 보람을 느꼈을 때는 2000년부터 2001년 NIH 산하 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의 Research Grant Application의 심사위원(Member, Scientific Review Committee)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취과에서 중요한 Pain Management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었고 anesthesia department 책임자로서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 중 Medical Acupuncture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UCLA Medical Acupuncture for Physician Course를 수료하고 UCLA Program에서 5년간 Preceptor로서 가르치다보니 Acupuncture 관심을 갖게 되어 많은 National Alternative Medicine Meeting에 참석하면서 NIH Member들을 만나게 되고 connection이 되어서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3개월(quarterly)마다 약 9~10 Acupuncture (다음면에 계속)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 이 사람의 향기 10문 10답

### 채영광 (02) 동문

새해를 맞아 Chicago, IL에 있는 채영광 동문을 만났습니다. 산소학번들(02=02)이 입학하던 2002년도에 졸업한 채영광 동문은 미국생활 14년차로, 혈액종양내과 전공 후 임상시험 전문가(clinical trialist)로 일하고 있습니다. 암 종류(histology)를 넘어 유전체학(genomics)에 기반한 각 암의 신호 전달체계(signal pathway)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하는 채영광 동문의 모습에서, 암 연구와 암환자 진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뉴스 보도에 비추어지는 세상에는 갈등과 불안이 여전한 때에, Dr. 채가 피워내는 희망의 향기를 여러분께 새해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만나는 이들을 귀한 영혼으로 대접하며 아픔을 보듬어주는 Dr. 채의 진료실로 함께 들어가보시지요.



#### 1. 미국에 오는 준비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졸업 후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틈틈이 USMLE와 GRE 등을 준비하여 운 좋게도 내과 residency와 MPH/MBA dual degree program 양쪽에 동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공보의 근무지가 경기도라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했는데, 전철 안에서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며 긴 통근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Residency는 pre-match라고 해서 대학 입시로 치면 소위 early-decision에 합격했던 것인데, 동문 선배님들께서 여러 수련을 받으셨던 좋은 프로그램이라 놓치지 아까웠지만, MPH/MBA를 먼저 하고 싶어서 Johns Hopkins 대학원을 택하였습니다. 마침 한국의 한 장학회에서 장학금도 지원받아 공부할 수 있었기에 기회가 좋았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는 얼마동안 같은 대학의 기초의학 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다시 residency match를 통해 pre-match 받았던 Albert Einstein 병원에 입국하였습니다. 내과 residency 수련 후 Houston, Tx로 옮겨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3년 과정의 혈액종

양 fellowship을 마치고 Northwestern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 2.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과 residency 중에 암환자들을 통해 삶과 죽음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면서, 이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보람이 많겠다는 생각에 혈액종양내과를 선택하였습니다. 'TLC (tender loving care)'와 science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암을 치료하며 질병과 고통의 어두운 면에 지쳐 우울해지거나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삶의 에너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료 과정을 함께하는 여정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동지애가 생기고요. 예전에 제가 말았던 젊은 주부 암환자가 사망한 다음 날, 뜻밖에 남편이 아이와 함께 큰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정성껏 치료해 주어 감사하다면서요. 장기간 병간호를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보호자가 환자보다 더 힘든 면이 있는데,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들을 통해 삶을 배우고, 인간으로서의 한계 앞에 겸손해집니다. 진료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에 따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보람됩니다. 제 clinic 목표중의 하나는 '보호자 돌보기'입니다. 예를 들어, 회진 하면서 보호자에게 "How are you doing? You are doing such a wonderful job."라고 말하면 보호자들이 붓물 터지듯 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의사의 한마디 격려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체험한 후로는 더욱 보호자 돌보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 하다보니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는 성경 구절을 새기며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돕고 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residency 지원을 위해 observer 경력이 필요하여 제게 연락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받아주려고 노력합니다. Observer가 있으면 사실 환자볼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함께 일하는 진료팀에도 불편함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실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현재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 3. 임상시험 전문가(clinical trialist)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혈액종양내과 의사이면 대개 무슨 암 전문, 이런 식으로 암종류나 장기별로 세부 전공이 되어있는 줄만 알았는데, 생소한 직함입니다.

Clinical trialist는 다른 말로 하면 translational physician-scientist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Phase I clinical trial을 계획하고, 환자들을 모으고, 연구 진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Clinic에서 진료도 하고, 제 환자들 중에서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연구에 등록하기도 하고요, 임상시험이 미국 전역의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기에 각 병원 연구책임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상담해주는 일도 합니다. 일이 바쁘기는 하지만 클리닉 시간을 줄이

지 않는 것은, 환자를 직접 보아야 scientific question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Clinical trial에 들어온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보면 보람되고, 연구도 공부도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진료와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일은 'pathway-targeted basket trial' 이라고 암 종류(histology)와 상관없이 유전체학(genomics)에 따라 암의 signal pathway에 맞추어 치료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한 신약 개발에는 신약을 발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약을 다른 질병에 재 적용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혈액종양분야는 전통적으로 암종류나 장기별로 세부전공이 나뉘기에 대개 fellow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암에 주력할 것인지 간판 분야를 정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한 종류의 암만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한참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토요일 오전 회진 후에 Chair가 저를 office로 부르시더니 진로 상담을 해보자고 하시는거예요. 저는 아직 마음의 갈피가 잡히지 않아 늦도록 면담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분은 무척 바쁜 분이리라 약속을 미리 잡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려운 분이었죠. 당신 office 의자를 내어주시며 제게 앉아서 눈을 감고 십년 후를 상상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진료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지 물어보셨지요. 제가 '한참 임상시험을 하면서 환자를 모으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Phase I이 맞겠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눈물이 날 뻔 했어요. 안개처럼 답답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환해졌던 느낌이, 아직도 생각하면 벅칩니다.

#### 4. 미국에 온 후 성격이나 생활 패턴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곳 생활이나 병원문화에 잘 맞는지요?

어느덧 미국에 온 지 14년이나 되었네요. 가장 큰 변화라면 목소리가 커지고 또박또박 짚어서 말하게 된 점입니다. 서울에서는 말수가 그닥 많지 않았고, 학교생활 하면서 목소리를 굳이 크게 낼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상대방에게 제 논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환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애쓰다 보니 말을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더불어 질문도 잘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컨퍼런스나 회의할 때 질문하기를 망설이거나 수줍어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견을 피력하고 싶어도 튀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에 말을 머금고 있었는데,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곳 분위기에 적응했어요.

#### 5. 지금 살고 있는 시카고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곳입니다. 대도시인데도 Midwest의 친절함이 있어요. 길을 찾고 있노라면 언제 어디서든 "Do you need help?" 라며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Urban & suburban life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다운타운의 변화함은 서울이나 뉴욕 못지 않고, 시카고 근교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애들 키우며 살 수 있는 환경이지요. 한인 커뮤니티가 커서 한국 문화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음식이나 식재료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찜질방도 있고, 최신 개봉 한국 영화를 볼수 있는 영화관도 있어요. 시카고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기로 알려졌지만, 저는 사계절이 뚜렷한 점이 좋아요. 겨울에는 옷을 단단히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는 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각종 학회가 많다보니, 의대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제가 전에 살았던 벌티모어, 필라델피아, 휴스턴도 큰 도시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KOSTA (Korean Students in America)라고 제가 아끼는 모임이 있는데, 매년 시카고에서 행사를 해요. 예전에는 14시간 운전하고도 오고는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참석할 수 있으니 제게는 더할 나위가 없지요. 앞으로 시카고에 장기적으로 있어도 좋겠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도 괜찮아요. 그 동안 미국생활을 하며 다 인생길에 섭리가 있다고 믿게 되었고, 어디 가서 살게 되든 만족하고 감사할 예정입니다.

#### 6. 자녀가 셋인데 육아는 어떻게 했는지요? 이민 1세대로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느끼는 장단점이 있다면요?

첫째는 6학년, 둘째는 1학년, 그리고 막내는 pre-K 입니다. 아내가 전문직 직장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육아를 도맡아 하느라 고생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까이서 애들 자라는 것도 보시고, 애들도 대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면 좋겠는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았다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적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친구들과 저녁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모임이 있어도 주로 가족 단위로 모이니 가족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고요. 부모님과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없는 단점이 크지만, 그래도 대체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는 이어서 2주 반 정도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으니 좋습니다.

#### 7. 학창 시절 추억 말씀해주세요.

아르페지오(클래식 기타 연주 동아리) 친구들이랑 연주회 준비하느라 연습하고 뒷풀이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관악캠퍼스 예과 2학년 시절 동아리 정기 연주회에서 당시 전국을 강타했던 일본 영화 <Love letter>의 삽입곡을 듀엣으로 연주했는데, 관중 앞에서 떨지 않으려고 인과가 많은 곳에서 담력 기르는 훈련도 했어요. 남학생 두 명이 남성대 쪽 마을버스 정류장 벤치에 죽치고 앉아 한껏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하하. 관악 전체 동아리도 하나 했었는데, <HIS>라고 힙합 댄스 동아리였어요. 본과 때 '연건 가요제'에서 친구랑 둘이서 우리나라 힙합의 조상격인 '듀스'의 2집 앨범 타이틀 <우리는>에 맞추어 춤을 춰서 대상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자녀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색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첫째가 교회 찬양 활동팀 오디션을 보았는데, 함께 준비해서 합격하니 신나더라고요. 제가 노래도 좋아해서 벌티모어에 살 때 교회 모임을 통해 Peabody 음대 사람들과 함께 합창단을 해서 무대에 오른 적도 있어요. 성악과 기악 전공자들과 함께한 공연은 그야말로 환상적 이었습니다.

#### 8. 사람들이 Dr. 채의 first name을 어떻게 부르나요? 영광? 영? 아니면 YK? 시계탑에 한 선배님께서 이름에 관한 단상을 쓰신 적이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단번에 발음해내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저로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궁금합니다.

집안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바람을 담아 부모님께서 '영광'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광' 발음을 잘 못해서 그냥 '영'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름 '영'이 정말 많아요. ^^;

#### 9. 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력서만 보면 각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온 듯 보일 수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Related Grant Applications을 primary reviewer 자격으로 심사하는데 150~200시간이 소비되는데 주중에는 시간이 없고 주말에만 매주 20시간을 소비하다보니 운동삼아 하던 골프도 접어두고 시간을 쪼개어 서류들과 씨름하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의사로서 U.S. Government(NIH)에 많은 시간을 봉사하였다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6. 본과 3학년 때 4학년 선배님들 모시고 충북 보은군 무의촌 순회하고 속리산 법주사에서 하루 지낸 것.

7. 다시 태어나도 마취의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재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8. 자녀들에게는 항상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개성을 살려서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운동시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9. 시간 나는대로 기후가 허락하면 주일 2-3회 골프하고 사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 우리 시계탑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4일- 8월 2일 사이에 이태리에서 열리는 4대 오페라 공연 중 3곳에 다녀올 행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나도 멤버로 있는 Dream Orchestra support group에서 주최한 것인데 이 그룹은 Maestro Daniel Suk이 지휘자 겸 음악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LA에 위치한 독립 오케스트라인 Dream Orchestra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만든 친교 성격이 있는 모임이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토요일 저녁에 모여 Dr. 석의 음악 강의를 듣고 음악가 한명을 모셔다 연주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아주 좋은 모임이다. 우연한 기회에 먼저 가입한 김명원 박사의 도움으로 가입하였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년 전에 이 그룹이 이태리 오페라 여행을 하였는데 김명원 박사는 갔다 왔으나 나는 그 당시 다른 여행 계획이 있어 아깝게도 기회를 놓쳤다. 다녀온 김 박사가 하도 자랑을 해서 내심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던 차에 올해 초에 Dr. 석이 이차 여행을 계획 한다가에 제일 먼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지휘자인 석 박사는 이태리에서 십수년간 성악(테너)을 공부하여 이태리 안팎을 손금보듯 알고 있었고 이태리 말이 유창하여 이태리 여행에는 최고의 안내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양반 이었다.

7월 23일 오후에 LAX를 출발하여 12시간을 날라 로마 공항에 도착하니 오후 1시 경이다. 싼 비행기표를 샀더니 짐값에 좌석 배당료에 자꾸 따로 받아내니 정규 가격에 비해 별로 돈 절약한것도 없나 보다. 거기다가 Verona 행 비행기표를 따로 샀더니 짐을 직접 부쳐주지 않아 로마공항에서 짐을 찾아 한참 걸어가야되는 옆 건물 국내선 청사로 땀을 뻘뻘 흘려가며 걸어가야 했다. 로마 날씨는 왜 그리 무덥고 후덥지근한지 금세 땀으로 뒤범벅이 된다.

역시 싼게 비지떡이라더니...

베로나 행 비행기는 오후 6시경 출발이라 스크린에 나와 있는 데로 게이트로 가서 한참 즐기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게이트가 바뀌었으니 빨리 옮기란다. 이런 xxx 지중해 지역 국가들, 이태리, 스페인에서는 흔한 일들이다. 그러니 나라 꼴이 PIGS이지 하며 투덜대며 자리를 옮기니 이미 탑승수속을 하고 있지 않나!

하마터면 비행기 놓칠 뻔했다.

우리나라 시골 비행장같은 베로나 공항에 도착하니 조그만 체구의 아줌마가 서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자기 이름은 시모네(Simone)이며 우리를 호텔까지 태워다 줄 버스 운전사 겸 안내인라고 소개를 한다. 조그만 체구에 힘은 좋아 우리 일행 짐을 전부 버스 뒤에 실어 주었다. 버스타고 가며 보는 베로나 시의 인상은 작은 크기에 이태리 치고는 비교적 깨끗한

것 같다.

도착하여 짐을 풀은 Due Torri (Two Towers) 호텔은 로비부터 중세풍 이태리 냄새를 풍풍 풍긴다. 벽화하며 고색 짙은 가구들, 즉시 마음에 들었다. 배정 받은 방은 제법 크고 고풍스럽게 단장되어 몹시 마음에 들었는데 특히 약간 풀 먹여 다린 리넨 시트는



## 고품격 이태리 오페라 여행

이 권 일(68, 남가주)

우리 일행 모두를 감동 시켰다. 이 시트를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호텔에 물어보니 Pedersoli라는 회사에 물어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메일 주소만 있기에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음 날 답이 왔다. 자기들은 호텔에만 납품하고 소매는 안하는데 지금 소매로 판매할 계획 중이란다. 리넨시트 사고 싶다는 일행 몇 분에게 알려 주었다. 로마에서 다른 브랜드를 찾아보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아선생(아마존)에게 물어 보는 것일 거라고 말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잘 차려진 아침을 얻어 먹고 베로나 시 관광에 나서기로 하였다. 첫날 Ballet는 문제없이 잘 보았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보러간 Opera Turandot 공연시간 전에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 오페라를 못 보나 했었는데 다행히 공연 직전에 비가 멈춰 주었다. 오페라 공연을 시작하여 2막만 지나면 환불을 안 해주어도 된다고 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공연은 시작한다고 한다. 때로는 3-4시간 지연되는 수도 있다고 한다. 허긴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제작비가 들어간 공연이니 비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면 주최측은 파산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다음 날 Firenze(=flower)로 내려오는 도중에 있는 Modena에 들려 Ferrari museum에 들렀다. 회사 역사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박물관에 전시된 예쁜 Ferrari들을 그저 침만 삼켜가며 보았다.

Uffizi Gallery를 둘러 본 후 그날 오후 5시에 호텔에서 버스를 타고 Pisa로 향했다. Pisa에서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Puccini Foundation에서 주최하는 푸치니 페스티벌이 열리는 Torre del Lago 야외음악당으로, 베로나에서 본 것과는 다른 production의, Puccini의 오페라 Turandot를 보러 가는 계획이었다.

Pisa는 아시다 시피 그 유명한 사람

(斜塔=Torre pendente= Leaning Tower)이 있는 곳이다. 나는 두 번 와서 본 적이 있다. 이번에는 저녁만 먹고 가기로 되어 있어 탑을 볼 기회는 없었다. 피사 시내에는 대형 관광버스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시내 외곽에 있는 버스 주차장에서 택시로 갈아타고 시내로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모든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는 법이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달랑 택시 한 대가 나타난다. 우리 일행이 몇 명인데 한대에 4명씩 타도 최소 몇 대가 필요 한데, 참...

주최자인 마에스트로의 얼굴이 꺼렇게 변한다. 예정대로라면 저녁을 한시간 안에 먹고 버스로 20-30분 거리에 있는 오페라 공연장으로 가야되는 거였다. 한참을 기다리다 주차장 옆에 있는 관광열차를 어떻게 교섭하여 타고 갈수 있게 되었다. 간난신고 끝에 도착한 식당은 좁고 전후로 길어 작은 테이블에 두 명이 앉을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주방이라 요리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하는 것을 잘 구경할 수 있었다. 주인이자 셰프가 요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허긴 택시 문제로 혼이 났을 거다. 식당 바로 옆집이 Galileo Galilei가 살던 집이다.

20여분 달려 도착한 Torre del Lago 연주장은 말 그대로 Lago(=호수) 옆에 위치한 아름다운 장소에 있었다. 푸치니의 고향인 Lucca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The Festival Puccini에는 일 년에 약 4만 명이 보러 오는데 공연 장소는 open-air theatre로 composer Giacomo Puccini가 살고 작곡을 했던 Villa 근처에 있다. 그의 묘소는 빌라내에 있는 작은 chapel 안에 있다.

입구에서 본 연주장까지는 나무다리로 된 통로를 통하여 들어가야 되었다. 오페라는 우리 리더 마에스트로가 오는 도중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해준 덕분에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다.

문제는 출연 가수진이나 오케스트라가 그 명성에 걸맞지 못한 연주를 한 것이었다. 비싼 돈 주고 먼데까지 와서 이런 3류 공연을 보게 될 줄은 몰랐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 이태리 경제가 나빠져서 이런 음악재단의 형편도 어렵게 되어 정상급 가수나 오케스트라를 초청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오페라 공연 수준이

좀 과심하다는 생각에 박수를 한번만 치고 곧 나왔다.

피렌체로 돌아오는 길에 언덕에서 시내 경관이 잘 보이는 곳에서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김 박사와 우리 마나님이 Basilica di Santa Maria Novella에 있는 그림을 보아야 된다고 하여 그곳으로 향했다. Masaccio의 Fresco Holy Trinity를 보러 간 것인데 이 그림은 원근법의 완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 그림보다 교회 정면 원형 창(Rose Window)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성당 바닥에 떨어지는 지점을 Summer solstice(하지) Winter solstice(동지), Equinoxes (춘, 추분)에 따라 표해 놓은 Egnazio Danti가 1575년에 만든 The camera obscura meridians에 마음이 더 끌렸다.

다음으로 간 곳은 Chiesa di Santa Maria del Carmine 바로 옆에 붙어 있는 Cappella Brancacci 였는데 처음에 갔더니 한 시간 후에 열린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시간 보내다가 다시 찾아갔다. 김 공과 우리 마나님이 꼭 보아야 된다는 Masaccio의 fresco가 즐비하게 그려져 있는 작은 예배당이다.

피렌체 구경을 잘 마치고 이튿날 아침 로마로 향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고 했던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있는 Toscana의 Montalcino 마을 근처에 있는 Banfi Winery를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Banfi Winery는 이태리 최대 규모의 와이너리인데, 1978년 이태리계 미국인 John과 Harry Mariani 형제가 시작하였고 이태리 최고의 와인 메이커인 Ezio Rivella와 손잡고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보통의 적, 백포도주 외에 sparkling wine인 prosecco와 최고급 DOCG 등급을 받은 Brunello di Montalcino를 생산하고 있다.

버스를 타고 한 세 시간 넘게 달려 포도원에 도착했다. 포도원 본부는 언덕위에 있었다. 시음장에 들려 prosecco, red, white wine들을 시음하고 옆 건물인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기로 하였다. 진짜 리넨이 깔린 테이블에 옛날 건물 속에 자리한 식당은 제법 운치가 있었다. 4코스된 점심을 와인 과 곁들여 잘 먹었다. 식당을 나와 선물 가게에 들려 식탁용 plating napkin과 napkin과 balsamic vinegar(이태리어로 aceto balsamico)를 두 병 샀다. 값이 제법 비싸다.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격이다. 다시 버스로 한 10여분 달려 와인 생산 공장과 저장고를 보러 갔다.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 이었다.

버스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길에 점심 먹고 난 후의 나른함으로 죄다 풀아 떨어졌다. 눈을 뜨니 로마에서 우리가 묵을 호텔 Eden에 도착해 있었다. 이 호텔은 로마에서도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급 호텔이란다. 방에 들어가 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방문 안 통로, 침실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있었지만, 사실 제게는 광야를 걷는 시간도 있었어요. 대학원 졸업 후 lab에 있을 때 실험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비자나 직장 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서 한참 막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펠로우 마칠 무렵 직장 잡을 때에도 그랬어요. 지금 직장도 매우 늦게 확정이 되었죠. 뒤돌아보니 지금 있는 이곳이 제게 마련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했을 clinical trial 등 귀한 연구 기회를 Northwestern에서 많이 만났어요. Funding 기회도 좋았고요. 조교수가 된 후 2년만에 Co-director도 되고, SWOG(Southwest oncology group) 안의 Early therapeutic rare cancer committee에서 뜻밖에도 Vice chair를 맡게 되어서, 1,000군데 이상의 병원이 참여하는 national level의 임상

시험을 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하는 임상 시험의 Principal Investigator도 되고 말이지요. 또한, fellowship program의 Associate program director로 일하면서 멋진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 멘토링도 하고 research protocol도 함께 쓰면서 더욱 흥미로운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축복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지요.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40대에는 어떤 삶을 그리는지요? 아울러 미국에서 수련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하는 일이 무척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잘 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Training 과정을 통해 생각했던 것

들을 자율성을 갖고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지금이 즐겁습니다. 작년 동창회 컨벤션의 'Career in the U.S.' 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1인 기업'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보낸 받은 곳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하면 행복하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어디서든 어여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그렇게 말이지요.

제가 그러던 미국 생활이 된 것 같다고 느낀 건 아무래도 교수가 된 이후입니다. 십년쯤 걸린 셈이지요. 처음 미국에 정착할 때는 사막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언어나 음식, 행동규범 등 적응이 힘들고, 진로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 보일 때가 가장 겸손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요? 의대 졸업 후 어느 정도 정해진

길을 다 함께 가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각자 독특한 길을 개척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에게는 분명 힘들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결과만이 고생한 값어치를 판단하는 잣대는 아니잖아요. 그 고단한 길 위에서 기쁜 맛을 깨닫는 것이 참 인생이 아닐까요.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애들 평탄하게만 크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여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기도합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긴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 50주년 행사 후기



여러분들을 깊은 꿈속에서 만나보고 미국 버지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존칭생략) 박용현, 김상우, 신애라, 문난모, 조승렬, 이석현, 임윤명,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강조웅, 미국 동기회장 신용계, 동기 행사때마다 수고하신 김영실 실장과 한국에 계신 여러 동문들의 노력으로 5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활동적이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버지니아의 쉘안도 산길에 눈을 감아도 보이는 고국의 산들처럼 붉은 단풍이 한창입니다. - 서윤석 드림

미국에 계신 동문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졸업 50주년 행사가 잘 치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행사를 꿈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쓸쓸한 마음이 과도와 같이 물려옵니다. 우리 동기들이 56년 전에 만난 것은, 그래서 함께 학창생활과 긴 인생여정을 함께 했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닌데 이번 기회를 끝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동기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움직임 건강이 안 되더라도 그런대로 부디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버지니아의 쉘안도 단풍진 산길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길인가요? 서울의 대 22회 동기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서울에서 김상우 드림

<전면에서 계속> 벽, 욕실, 세면대가 온통 백색, 연한 갈색의 대리석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집 마나님이 이런 곳에서 황송해서 어떻게 잠을 자! 라고 중얼 거린다.

이튿날 아침 10시에 로비에 모여 투어 가이드인 Elisabetta Massari의 인솔로 로마 시내 구경에 나섰다. 섭씨 40의 기온에 습도는 거의 90% 되는 것 같다. 남가주에서는 땀이 나도 곧 증발이 되지만 로마에서는 높은 습도 때문에 땀이 온몸에 줄줄이 흘러내린다.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나는 곧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더위로 구경이고 뭐고 다 귀찮아 진다. 이번으로 로마는 세 번째 방문이다.

첫 번째는 20여 년 전 애들 다 데리고 제일 싸구려 여행사 쫓아온 그룹 투어였고 두 번째는 작년에 시실리 투어 후에 하룻저녁 잠깐 머물렀으니 본격적 관광은 이번에 하는 셈이다.

유명한 건축물 장소 등을 땀을 뻘뻘 흘리라며 구경 한 후에 호텔로 돌아오니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마에스트로를 로비에서 만나 concierge에게 물어 근처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다. 맛은 그저 수준급 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낮잠을 달게 한숨 잔 다음에 다시 concierge에게 소개받고 호텔 차로 트레비 분수 근처에 있는 Trattoria Tritone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웨이터가 샐러드로는 노랑 버섯을 어찌어찌 요리한다고 해서 얼른 한 접시 시키고, 본 요리로는 오늘 스페살에 도미가 있다는 소리를 하자마자 우리 네 명이 이구동성 그것으로 하자고 주문하였다. 샐러드는 노랑 버섯을 얇게 저며 아루굴라 상추위에 놓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뿌린 것인데 맛이 하도 좋아 허겁지겁 먹다가 겨우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찍었다. 이어 물에 살짝 익힌 도미에 토마토 베이스의 소스를 뿌린 요리를 가져 왔다. 허겁지겁 먹다가 겨우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우리 여행에는 음식 사진이 별로 많지 않다. 매일 파스타만 먹다가 생선을 먹으니 살 것 같다.

배가 부르니 사제가 보인다. 둘러보

니 꽤 오래된 집인 것 같다. 맛있다고 divina, bellissimo 어쩌구 해대니 한 신사가 와서 자기가 매니저라고 소개한다. 이 집은 1884년부터 있는 곳이라니 100여년이 넘는 오래된 음식점이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다.



호텔로 돌아가 버스로 Terme di Caracalla(Bath of Caracalla)에서 열리는 오페라를 보러 갔다. 이 곳은 Caracalla 황제 (AD 212, 216/217 사이에 건축됨) 때 건축된 대형 목욕탕으로 AD 530년까지 사용되다가 방치된 후 유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근래에는 3 테너(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의 콘서트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 이다.

오늘 저녁 오페라는 비제의 칼멘. 무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설정되었고 배경에는 담벽을 올라가는 남자 인형, 애를 업은 여자 인형을 걸어 놓았고 뒤에 Mt. Rushmore에 있는 4명의 대통령 석상 중 링컨을 없애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 놓았다. 무대장치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작자가 이태리인 아니면 반 트럼프 정서의 좌파 좀비인 모양이다. 더구나 중간에 성조기 찢는 장면이 나와 내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었다. 무대는 그랬으나 오페라 자체는 수준급 공연이었다. Carmen, Don Jose를 연기한 가수들이 잘했고, 특히 Micaela역의 중국인 soprano가 훌륭했다. Bravo, brava, bravi, bellissimo를 외치다 흡족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다. Torre del Lago에서 실망한 것을 이번 칼멘 공연으로 많이 만회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은 자유시간이라 어제 우리를 안내하던 Elisabetta에게 부탁하여 호텔 바로 뒤에 위치한 Galleria Borghese로 우리를 안내해달라고 하였다. 이 곳은

## The Roads Taken

-for the 50th year reunion ceremony

Seo, Youn Seok

Hamchun Gardens cheer up the fall  
fountains squirt water in front of the clock,  
pounding steps of trustful oxen  
and gushing air from eagles' wings  
lead high clouds in dance

we sincerely thank the spirits  
who hid behind the walls  
and gave us their bodies  
we sincerely thank our honorary academy  
that filled our studies with medical science  
and recall our pounding steps of the past

with a deep sigh and tears  
we miss the persons who left us  
we cry over friends who passed away  
we remember old days on this campus  
we recall the steps we walked together

our motherland trembles  
but we overcame the struggles from the past  
and returned for our final victory  
with the highest medal pinned on the chest  
to be a shining light in the darkness  
greater than general Odysseus

whatever the future brings-  
going deaf or blind or feeling alone-  
we will raise our hands together, however weak  
to sincerely pray to God  
for the pounding steps to our eternity.

Villa Borghese 경내에 있는데 교황 Paul 5세의 조카인 Cardinal Scipione (1570-1633)가 세웠다. Bernini의 조각들과 Caravaggio의 그림들 같은 걸작품으로 가득찬 보물 창고같다.

나는 처음 찾아가는 도시에서 식당을 찾을 경우 관광객이 많은 중심부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있는 식당을 찾아 간다. 고객의 발걸음이 뜸한 곳에 있으니 맛으로 승부를 하겠지 하는 추측 때문인데 대개의 경우 잘 맞아 떨어지기는 하나 100% 보장은 되지 않는다. Apollinare라 프랑스 시인의 이름인데 여기 로마 중심부에 이런 이름 가진 식당이 있으니 그가 다녀갔던 곳인가 하고 잘 보니 근처에 있는 성인 이름을 딴 광장 Piazza di S. Apollinare에서 온 모양이었다. 더위에 지치고 탈수된 상태에서 마시는 맥주 맛은 최고이다. 이태리 맥주는 와인에 비해 맛이 별로 없다. 점심으로 구운 오징어를 시켰는데 맛이 괜찮았다.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에 Frette라는 bedding 파는 가게가 있어 혹시 베로나에서 맛 본 리넨 베드시트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았다. 물론 있었다. 문제는 그 값이 천문학적인 거다. Queen bed sheet set가 물경 1600유로! 한 번만 만들어보고 그대로 나왔다. 김 박사 내외는 셔츠 좀 사겠다고 다시 중심부로 들어가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달고 단 낮잠을 한 숨 잤다.

Firenze는 다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의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고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Renaissance의 발상지였고 오랫동안 Medici 가문의 통치하에 번영하여 왔다.

일 년 내내 수백만의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나도 오늘 그들 중의 한명이 되었다. Historic Centre of Florence는 1982년에 UNESCO World Heritage Site로 지정되었다. 수많은 박물관과 유적들이 있으며 그중 Uffizi(=Office) Gallery와 Palazzo Pitti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 간다. Forbes지에 의하여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로 선정되기도 했다. 피렌체는 이태리 패션의 중심지중 하나이며 15 top fashion capitals of the world 중 하나 이다.

우리가 묵던 호텔 근처에 Ferragamo World Headquarters & Museum이 있어 나도 들러 큰맘 먹고 거금(!)을 들여 넥타이를 하나 샀다. 도착 다음날 안 내인을 따라 구시가지 중심부를 걸으며 중요한 건물들을 구경하고 미리 준비했던 표로 피약별 아래 한참을 줄서서 기다리다 Florence Cathedral (the Cattedrale di Santa Maria del Fiore)의 300여개의 좁은 계단을 헉헉 대며 걸어 올라가 Duomo 꼭대기 바깥에서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역시 땀 흘리고 올라온 보람이 있었다. 펼쳐지는 피렌체 시내 풍경이 훌륭하다.

저녁은 우리 둘째 아들이 몇 년 전에 왔다가 저녁을 먹었던 식당이 좋다고 적극 추천하기에 cell phone GPS로 골목골목을 돌아 Trattoria Nella를 찾아 갔다. 역시 음식은 맛있었다. 이태리는 먹는 것을 중시하는 나라이니 어느 식당을 가도 LA 최고급 이태리 식당 보다 열배는 낫다. 특히 필수 코스로 먹는 파스타는 그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버섯 파스타를 시키면 버섯 모양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나 버섯 향이 그대로 혀 끝에 물려오는 그 황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Spaghetti al Vongole를 시키면 조개는 몇 개 보이지 않으나 조개맛이 입속을 땀도는 만족감을 준다. 가히 요리의 명인들만 사는 고장답다. 특히 어느 음식점 셰프가 자기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행운은 없을 것이다.

다음날 저녁에 찾아간 Hosteria il Desco는 전날 갔던 곳에서 두어 집 떨어져 같은 골목에 있었다. 이 집은 내가 그냥 구선생(구글)에게 물어보아 별이 제일 많은 곳을 찾다 간 곳인데 어제 갔던 Trattoria Nella 보다 한급 위인것 같았다. 실내 데코레이션하며 진짜 리넨 테이블보에 리넨 냅킨 등등. 나중에 플로렌스에 오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 되었다.

편집자 주: 미주동창회 웹사이트에서 많은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

이 회 백(61, 워싱턴)

2014년도 American Jewish Yearbook에 의하면 전 세계 유대인은 1,450만 명인데 그 중에 57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되어있다. 전 세계 유대인의 40%가 미국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유대인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은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 2017년까지 총 노벨상 수상자가 892명인데 22.5%인 201명이 유대인 출신이다. 타 종족(gentile)과 비교해 유대인은 인구당 112.5배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셈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독특한 문화, 종교, 다른 종족과의 마찰에서 생긴 이산(diaspora)의 역사, 세계적인 반유대인 감정(Anti-Semitism)의 원인, 1948년에 성취한 이스라엘 건국과정과 그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인과의 분쟁 등을 통해 이들을 이해 해볼까 한다.

유대인들이 독특한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자기들 외의 다른 사람들을 통틀어 "gentile"이라 부르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이 독특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유일신인 야훼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도 희랍문명(Hellenism) 시절에는 다신교(Polytheism)를 믿는 다른 종족과 별로 다름이 없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든 도중 시내산에서 야훼 신을 만나 그와 직접 대면(face to face)하고 다른 신은 두지 말라는 계시를 받으면서 다른 종족과 크게 달라졌다. 모세 5경이 적힌 "Torah"는 신이 유대인에게 내린 규약이라 하여 그들은 이를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그후에 구두로 전해오는 계율들을 첨가한 것을 Mishnah라고 부르고 이것을 시대에 따라 해석한 것을 기록한 것이 탈무드이다. 여기에는 613개의 계율이 적혀있다. 이 법률(legal code)중 "Hala-khah"라는 세부적인 유대법 조항에 안식일(Shabbat)과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조항이 있다. 이들이 이를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항공사인 "El Al"은 토요일에는 운항을 하지 않는다. 젓소에서 젓을 짜도 안된다. 이 문제는 금요일 날 흠차기를 붙여놓고 timer로 토요일에 짜도록 함으로서 해결한다. 내가 다니는 유대인 체육회관은 나와 같은 종족을 위하여 토요일에도 열지만 유대인이 아닌 종족 직원만 근무한다. 불을 붙이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되어있다. 돼지고기나 계, 조개 등 "Shell food"를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돼지고기나 shell food는 깨끗하지 못한, "kosher"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고기면 다 코셔냐 하면 그게 아니다. 목을 따서 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만이 코셔 소고기다. 코셔 자격을 갖춘 도살자가 잡은 고기라야 코셔 고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코셔 음식은 비쌀 수밖에 없다. "Fiddler on the Roof"란 영화를 본 사람이면 주인공의 첫째 딸을 늙은 부자에게 중매하려는 장면을 기억할것이다. 왜 동네 푸줏간 영감을 부자역으로 등장시켰는지 알만하다. 사냥으로 잡은 짐승은 코셔가 될 수 없다. 유대인 몇명에게 물어 봤는데 짐작한대로 자기들은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유대인들은 출생한지 8일 만에 할례(circumcision)를 하게 되어있다. 예수도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적혀있다.

1월 1일은 12월 25일로 부터 8일되는 날이니 정월 초하루는 예수가 할례 받은 날과 겹친다. 할례 못받은 사람은 유대인 묘지에 묻힐 수 없다.

Baruch Spinoza의 할아버지는 할례 받지 않고 죽었다. 아마 Spanish Inquisition 당시 Catholic으로 거짓 개종(Marrano라고 부른다)한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의 시체를 할례를 한 후에야 유대인 묘지에 묻었다. 그만큼 이 규율은 엄격하다. 남자 아이는 13세 됐을 때 "Bar Mitzvah" 여자 아이는 12살 됐을 때 "Bat Mitzvah"란 성년식을 거행한다. 유대교의 법칙을 숙달한 완성된 유대교인이 되었다는 예식이다. 유대인은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두 차례 Shema,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이란 기도를 한다. (유대인 문자는 가로 쓰기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Jew Menorah Hanukkah

유대인은 크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Hasidic Jews라고 하여 원래 스페인과 폴투갈에 살던 유대인들로 Hebrew 말을 쓴다. 다른 큰 유대인족은 Ash-kenazi라 불리는 유럽 북쪽, 지금의 독일과 그 동쪽에 살던 유대인으로서 Yiddish (Judaic-German) 말을 쓴다. 대부분이 Ashkenazi Jews로 구성된 특수한 믿음을 가진 Hasidic Jews라는 집단이 있다. 그들은 극단적인 유대정교(Ultra-Orthodox) Jews로서 자기들은 신과 직접 통화한다고 믿고 독특한 복장(특히 광주리 같은 큰 모자)에다가 푹푹 끈 머리카락을 귀 앞에 길게 늘이고 대식구를 거느린다.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은 이들은 이스라엘 군복무에서 면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Anti-Zionist이며 런던에 사는 이들 중엔 "Annual Quds Day Parade"에 참가 팔레스타인과 함께 "Boycott Israel" "We are All Hizbullah(sic)"란 구호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그린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한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2017년 9월 12일에 Hasidic Jews에 대한 병역면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1년 내에 법률을 고치라고 명령했는데 원체 복잡한 정치문제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인구의 13%인데 2030년엔 20%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반유대인 감정(Anti-Semitism)의 원인

Torah의 가르침과 탈무드 규율을 따르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종족간의 마찰은 불가피 하다. 특수한 음식만을 먹는 것, 철저한 안식일(토요일) 준수, 타인종과의 결혼억제(endogamy), 신이 자기들만을 특히 선택해 우호한다는 선민사상(chosen people) 등은 유대인들을 타인종과 격리하게 만들고 배타적이게 만든다. 유대인을 예수의 살해자(decide)로 여기는 기독교의 입장은 유대인을 미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4세기때 Constantinople의 대주교 John Chrysostom은 유대인들은 "증오를 받아 마땅한 예수 살해자이며 신을 죽인 자에게 속죄란 있을 수 없다"고 설교했다. 그를 "Golden Mouth"라 부르듯 그의 말은 금언 이었다.

유대인을 미워하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유대인들은 부정직한 고리대금업자라는 인식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고 토지 소유도 못하게 되어있어 대금업과 상공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고리대금업을 죄악시한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종족(gentile)과의 거래는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있어 금융업을 독점했다. 그덕택으로 이들이 성공하자 이들은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성공은 바로 그들의 부정직함의 증거라는 잘못된 편견을 낳게 했다.

그들이 미움 받는 또 하나의 원인은 "blood libel"이라 하여 유대인들은 유월절(Passover) 때 효모 없는 빵(matzo)에 아이들을 죽인 피를 섞어먹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린아이 사망 사건이 생길 때마다 흔히 유대인을 혐의자로 몰고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증거"로 내세워 유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재산을 탈취하고 추방하거나 죽이는 일이 빈번했다. 흑사병이 돌때마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설이 퍼져 박해 당했다.

### 유대인 이산(diaspora)의 역사

기독교가 생긴 후에 또 다른 일신교, Islam이 나타났다. 이슬람은 창시자 Muhammad를 예언자(prophet), 신의 사자(messenger)로 여길 뿐 Messiah로는 여기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예수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유대교와 유사하다. 유대교보다 후에 나타난 이슬람도 유대인 사원, Synagogues를 자기들의 사원보다 더 높게 짓지 못하게 하고 승마도 금하며 당나귀 타는 것은 허용하되 남자도 여자같이 옆으로 타야만 되고 노란색 옷을 입도록 하여 한눈에 유대인임이 드러나게 하고 어떠한 무기도 소지 못하게 하는 등의 차별을 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유대인들을 악마시 하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80% 이상이 이슬람 지역에 살았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국가 무력의 뒷받침이 있었지만 유대교는 없었다.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성장해 남지중해 전역과 스페인까지 퍼지자 유대인들도 같이 퍼졌다. 특히 스페인 남쪽 지방 Andalusia 지역에 자리 잡은 유대인들은 Moore족과 같이 번창했다.

기독교(카톨릭)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스페인에서 몰아내자 유대인에게 카톨릭으로 개종하든가 개종하지 않으려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 하고 둘 다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카톨릭으로 거짓 개종했는데 발각되면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auto-da-fe)을 당했다. 이것이 악명 높은 "Spanish Inquisition"인데 유대인의 개종을 전혀 믿지 않게 된 스페인의 Isabella 여왕과 Ferdinand 왕은 1492년 "Alhambra"란 포고령으로 스페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했다. 이로써 유대인의 대 이산(diaspora)이 시작되었다. 폴투갈도 스페인의 뒤를 따랐다. 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 폴투갈 등을 떠나 지금의 화란에 이주했다. Baruch Spinoza의 조상도 이들 중의 하나다. 다른 곳에 이주한 유대인들도 자유롭게 살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고 정해진 곳에서 갇혀 살게 했는데 이곳을 Ghetto 라고 부른다.

Ghetto란 원래 주물소(foundry)란 말인데 쓰지 않는 빈 주물소 자리를 유대인을 가둬놓는 장소로 쓴 연유로 인해 이런 이름이 생겼다. 최초로 생긴 Ghetto가 Venice에 생긴 Ghetto Vecchio로 역시 여기서도 돈을 빌려주거나 상업으로 살아갔는데 세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을 쓴 것도 이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1006년 "William the Conqueror"가 영

국을 침공했을 때는 유대인을 환영한 덕에 많은 유대인이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흔히 "Aaron of Lincoln"으로 불리는 Aaron으로 금융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용자해준 왕(Henry 2세)의 재산을 능가하는 재산가가 되었다. 그러자 그의 성공은 그를 공격의 대상이 되겠끔 만들었고 1255년 사인을 알 수 없는 아홉살 난 아이(Little Hugh)의 시체가 우물에서 발견되자 예수의 처형을 재현하는 유대인들의 짓이라고 단정하고는 고문으로 "자백"을 얻어낸 후 이를 빌미삼아 당시의 왕 Henry 3세는 Lincoln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처형했다. 그리고 Edward 1세는 1290년에 전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 이 사건을 이용해 이곳 주교는 죽은 아이 Little Hugh를 순교자로 만들면 이곳이 순례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순례자가 몰려와 큰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판단 이 아이를 Little St. Hugh로 승격시켰다. 유대인을 추방한 덕택으로 왕을 비롯한 많은 빛진 사람들은 빛더미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고문으로 날조된 사건이었다고 시인한 것은 700년 후인 1955년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blood libel"은 계속되었고 그중 가장 악명높은것이 1840년에 발생한 "Damascus Affair"로서 심한 고문을 당한 많은 유대인이 죽은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 여론이 압력을 가해 당시 시리아를 지배했던 예집트가 살아남은 혐의자를 석방시킨 사건이다.

### 유대인 학살(POGROM)

제일 유명한 유대인 학살은 누구나 잘 아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한 소위 "Holocaust"로서 약 6백만 명이 살해되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학살은 이것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수없이 있었다. 그중 러시아에 의한 한 가지만 소개하겠다. 18세기 후반에 Poland는 Russia, Prussia, Austria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는 가장 관용적이고 핍박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불란서와 독일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많이 이곳으로 이주했다. 1772년, 1793년, 1795년 세 차례에 걸쳐 분할점령 되었는데 러시아가 제일 많이 차지했다. 러시아는 점령지역에 있는 유대인 상인들의 요구에 부응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시골로 쫓아내고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런 지역을 "Pale of Settlement"라 부르고 이런 마을을 "Shtetls"라고 한다. 영화 "Fiddler on the Roof"에서 보는 그런 가난한 촌마을이다. "Pale of Settlement"는 발틱해에서 흑해까지 걸쳐 있었다.



사진: Jewish Polish Shtetls

이렇게 러시아와 유대인들이 긴장상태에 있던 중에 1861년에 러시아 Tsar Alexander 2세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반유대인 폭동이 일어났다. 이 알렉산더 2세는 미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 보다 2년 앞서 1861년에 serf를 해방시킨 사람이다. 그전에도 네 번이나 암살시도가 있었지만 무사했었는데 이날은 첫 번째 암살기도는 피했으나 두 번째는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첫번째로 유대인을 혐의자로 지목하는 게 전례로 되어있어 유대인 주모자를 발견하려고 했으나 실패(다음면에 계속)

# Paris 에서 강의

노용면 (55, 대뉴욕)



내가 프랑스 Paris 에서 강의를 마치니 그곳 신문이 내가 한 강의를 길게 설명했다. 그런 후 그곳 TV 방송국에서 여자 직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강의 할 때 보여준 slide 몇개를 빌려 달라

고 했다. 내가 그녀에게 slide 다섯개를 빌려 주면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돌려 달라고 했다. 다음 날 내가 영국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알려 주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slide들을 돌려 보내지 않았다. 내가 호텔 사무실에서 방송국에 전화를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manager가 결정할거라 했다. 내가 오랫동안 그 여자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호텔 여직원이 듣고 있더니,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그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부탁한다고 했다. 얼마후 방송국에서 slide들을 보내 왔는데 그들이 내가 빌려준 slide들이 아니고 그들의 사본이었다.

# 그향의 빛

노영일 (68 시카고)



의대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서울에 갔다가 죽마고우인 S 화백을 만났다. 10년 만의 만남이라 반가웠고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하여 며칠 더 머무르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주로 풍경화를 그리는데 자기가 늘 그림 그리러 다니는 설악산과 동해안을 가지고 하여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났다.

설악산 가는 고속도로는 아주 좋았다. 옛날에 가파른 산길을 지그재그로 가던 기차를 타고, 또 시외버스를 타고 먼지나는 길을 하루 종일 가던 동해안을 두 세시간에 훌쩍 가버린다. 고속도로변 휴게소 시설도 훌륭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먹거리도 여러가지 있었다. 그중에 호두과자를 파는 가게도 있었다. 옛날에 밤열차를 타고 졸며 부산을 가다가 “천안 호두과자요” 하는 소리에 깨어 호두과자를 사먹던 생각이 난다. 고향에 돌아오니 옛 추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딱딱딱한 호두과자는 너무나도 맛있었다.

대명 리조트라는 곳에 여장을 풀었다. 시설은 5성급 같아 보였다. 마주 보이는 곳에 울산바위가 우람하게 서 있었다. 스톤헨지를 본따 만든 것 같은 고인돌과 잘 가꾼 정원, 골프장, 어린이 놀이터 등 미국의 여느 리조트보다 나아 보였다.

우선 점심으로 황태정식을 먹었다. 이곳 식당 간판들은 XX 할머니집, OO 할머니의 옛맛 등등 ‘할머니’가 많이 들어있다. 서양화된 지금의 음식보다 옛맛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려는 듯 했다.

식사 후 설악동으로 갔다. 깨끗한 진입로를 한참 걸어 들어갔다. 우거진 단풍, 계곡의 돌과 시냇물을 보며 한가한 마음으로 산책하듯 걸어갔다. 단풍계절이라 XX 산악회, OO 사진작가회 등 단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닌다. 케이블카를 타고 우람한 산세와 단풍을 내려다보았다. 신흥사를 거쳐 내려오는 길에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되어 있다 정신을 차리니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산속에서는 어둠이 빨리 내린다. 서둘러 산을 내려 왔다.

다음날 아침 내설악으로 들어갔다. 한계령을 넘어 만물상이 보인다. 계곡을 따라 걸어 내려가며 주위의 경치에 도취했다. 우람한 바위산,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 단풍이 어울려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S 화백이 왜 이곳에 계절 따라 오며 그림을 그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전골 독주암을 거쳐 성곡사 오색약수터에서 만병통치라는 약수 한 모금 마시고 계속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이제는 약간 피곤한 느낌이 들었다. 설악산 구경을 끝내고 동해안으로 내려 왔다. 화가들이 주로 머문다는 콘도에서 한밤을 잤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동해의 해돋이를

보러 촛대 바위에 갔으나 구름이 끼어 해 뜨는 것을 보지 못했다. 기묘한 바위들이 예술품 조각처럼 보인다. 능파대(凌波臺)의 석림(石林), 이름도 멋있다. 파도가 이 기묘한 바위들을 치고 감싸 돌며 물보라를 뿌리고 희롱을 한다. 바위 위의 정자도 낭만적이다.

한쪽에 철조망이 쳐있고 경고관이 서있다. 이곳은 군 작전지역으로 이곳의 CCTV를 훼손하면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갑자기 황홀한 낙원에서 현실세계로 떨어진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금강산이 바로 저긴데,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삼척 장호항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있었다. 바닥이 유리라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항구와 정박해 있는 배들도 그림 같았다. 옛날 내가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이다. 한국이 엄청 발전했다.

휴게소 옆에 보니 전화 부스를 개조하여 무료 도서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다. 요즘은 누구나 손전화를 가지고 다니니까 공중전화가 필요 없는가 보다. 아무나 책을 읽고 싶으면 여기 앉아 보든지 가지고 가든지 마음대로다. 휴게소에서 차 한 잔하며 피로를 풀었다.

오랜만에 본 고향의 산하는 매우 아름다웠다. 캐나다인 록키, 미국의 캐년, 스위스 알프스, 노르웨이의 휘요르, 히말라야, 장가계, 황산, 계림 등 두루 다녀 보았으나 감탄스럽기는 해도 어머니의 품 같은 정감은 없었다. 어린 시절 보며 자란 우리의 산하가 새삼스럽게 정답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각인(Imprinting)이라 하던가. 어린 시절 머릿속에 찍힌 사진이 평생을 따라 다니며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Baby duck syndrome, 첫사랑의 추억, 귀소본능이 다 이런 현상일 것이다. 산, 나무, 단풍, 물, 바다, 바위 등 하나님이 창조한 풍경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서울로 돌아와 S 화백의 갤러리에 들러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며 화가의 예술세계에 다시 한 번 도취해 보았다.



S 화백을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다. 그러니까 무려 60여 년 전이었다. 그림을 좋아하여 특별활동 시간에 미술반에 들어갔는데 S화백은 그림을 빼어나게 잘 그려 줄곧 미술반장을 했다. 나는 그를 따라 다니며 같이 그림을 그렸다. 늘 그의 그림 재주에 감탄을 하곤 했는데, 그도 나더러 그림을 잘 그린다 했다. 나는 내가 정말 그림을 잘 그렸는지 그가 나와 친구하고 싶어 그랬는지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다. 고교를 졸업하고 그는 서울 미대에 진학하여 화가의 길을 걸었고, 나는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대학시절에도 자주 왕래를 하며 친하게 지냈다. 나는 늘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부러움을 느끼곤 했다. 우리 둘 다 화가와 결혼했다. 나는 미국으로 이민 오고 그는 한동안 영국에서 화가 생활을 했다. 그러다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은 원로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두어 번 미국 우리 집에 들러 우리 집 그림도 그려주곤 했다. 이번에는 십년만에 만났는데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몸도 쇠약해져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친구여...

# 숲속의 하루

아해 김태형(63, 조지아)

자연의 속살을 드러다 본다  
아이의 눈망울로  
시인의 가슴으로

영혼에 속삭여 오는  
생명의 신비, 다양성, 공생 그리고  
끝없는 순환

선사神師의 그윽한 눈빛을 느껴본다  
숲속의 하루



<전면에서 계속> 하자 조사당국은 “실망”했다. 그러나 “다행히” 음모자중 Gesya Gelman 이라는 젊은 여자가 유대인이입이 들어나자 전적으로 “유대인 음모”로 몰았다. 이 젊은 여자는 16세 때 중매결혼 시키려는 부모 집을 뛰쳐나와 떠돌아 다니다가 이 암살단의 일원과 사귀게 된 인연으로 공범자가 된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유대인들의 음모로 몰고싶은 관료들에게는 지위의 고하는 상관없고 그가 유대인이라는것만 내세우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암살사건이 “유대인”의 음모라고 알려지자 “Pale of Settlement” 곳곳에서 유대인에 대한 폭동이 일어났다. 60군데가 넘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 많은 유대인이 학살되고 재산이 파괴되었으며 외국으로 피난했다. 이 사건이 유대인에게는 큰 액운이었으나 유대인에게 빛진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천운이었다. 이때를 기해 150만명의 유대인들이 미국과 서유럽으로, 4만명이 팔레스타인으로 떠났다. 당시 미국 유대인 통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2차 대전때 우방이던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냉전이 시작된 이유가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으로만 설명될수 있나 하는 의아심이 있었는데 이 Pogrom도 원인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쓰라림을 당한 미국내 유대인들의 반러시아 감정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Zionism” 의 출현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

1789년 불란서 혁명의 구호인 “Liberte, Egalite, Fraternite” 그리고 “Right of Man”의 물결을 타고 마침내 유럽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등권이 찾아온 것 같았다. 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 전문직도 바라볼 수 있으며 토지소유도 할수 있는 세상이 왔으니 어디서든 그 지역사회에 동화하면 살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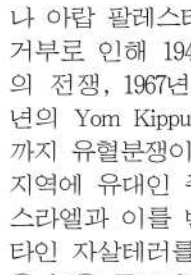
신념은 1894년에 발생한 Dreyfus 사건으로 인해 무너졌다. 2차 공판에서 재차 유죄로 판결되는 것을 지켜보던 Theodore Hertz는 자신들의 Home Land 가 없는 한 유대인은 결코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Zionism”을 주창하게 되었다. 그래도 동화(assimilation)만이 해답이라는 Anti-Zionist들도 있었지만 1917년에 선포된 “Balfour Declaration”과 2차대전 중에 일어 “Holocaust”로 인해 일어난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에 힘입어 시온이즘은 널리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큰 난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원주민과의 관계였다.

Chaim Weizmann과 Prince Faisal(후에 King Faisal I of Iraq)은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끝까지 믿었다. Prince Faisal은 1919년 미국 시온이즘 지도자 Felix Frankfurter 와의 교신에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hearty welcome home)한다고 까지 했었다. 이때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은 4%에 지나지 않았으나 Pogrom을 피해 밀어닥치는 유대인 이민자(Exodus)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를 두려워한 아랍 팔레스타인들은 유대인을 공격하게 되고 유대인도 이에 맞서 싸우게 되자, 이 두 지도자의 이상은 이상으로 그치고 현실화 되지 못했다. 과격파인 Ze’ev Jabotinsky는 1923년에 아랍과 공존한다는 것은 망상이고 “Iron Wall”을 세워야 된다고 예언했었다. 일차대전후 팔레스타인의 신탁통치를 맡았던 영국은 사태수습을 포기하고 해결책을 UN에 넘겼다. UN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지역, 아랍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국제관리 지역으로 쪼개는 분할결정을 내렸다.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이 David Ben-Gurion에 의해 선포되어 시온이즘의 꿈은 실현되었으나 아랍 팔레스타인들의 UN 분할결정 거부로 인해 1948년 인접 아랍국가와의 전쟁, 1967년의 Six-Day War, 1973년의 Yom Kippur War를 거쳐 오늘날까지 유혈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아랍지역에 유대인 주택지를 건설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반대해 싸우는 팔레스타인 자살테러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높은 콘크리트 벽(Western Wall)을 세웠다. Ze’ev Jabotinsky 예언이 적중한 셈이다. 온건파였던 Yitzhak Rabin은 1995년에 암살되었고 강경파인 Benjamin Netanyahu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재차 2009년부터 오늘날까지 장기집권 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 Benzion Netanyahu가 Ze’ev Jabotinsky의 senior aide 였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칼과 벽을 버리고 Torah의 말씀에 따르는 지혜로운 유대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9/14

## Jew Six Day War



국제관리 지역으로 쪼개는 분할결정을 내렸다.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이 David Ben-Gurion에 의해 선포되어 시온이즘의 꿈은 실현되었으나 아랍 팔레스타인들의 UN 분할결정 거부로 인해 1948년 인접 아랍국가와의 전쟁, 1967년의 Six-Day War, 1973년의 Yom Kippur War를 거쳐 오늘날까지 유혈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아랍지역에 유대인 주택지를 건설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반대해 싸우는 팔레스타인 자살테러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높은 콘크리트 벽(Western Wall)을 세웠다. Ze’ev Jabotinsky 예언이 적중한 셈이다. 온건파였던 Yitzhak Rabin은 1995년에 암살되었고 강경파인 Benjamin Netanyahu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재차 2009년부터 오늘날까지 장기집권 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 Benzion Netanyahu가 Ze’ev Jabotinsky의 senior aide 였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칼과 벽을 버리고 Torah의 말씀에 따르는 지혜로운 유대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9/14



# 잔디(잡초 뽑기)

김시한(58, 대뉴욕)

반 세기전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보니 미국생활과 한국생활과의 차이점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주거 환경이다. 한국의 집 마당은 서울에서는 집속, 시골에서는 울타리 안에 차지하고 있으나 2차 대전 후 널리 개발했던 미국 suburb의 집 마당은 집 주위에 차지하고 있다. 한국 집 환경이 폐쇄적인데 반하여 미국 suburb의 집 환경은 터져 개방적이다. 집 주위에 잔디가 깔려있는 것이 필수적이고 내 눈에 인상적으로 보였고 나도 잔디가 있는 집에 살았으면 하였다. 마침내 1970년 나도 가정의 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군이 좋은 구역을 찾아 뉴욕 suburb인 Pelham Manor라는 village에 조그마한 ranch형 집을 장만하고 약 8년 살다가 같은 동네 1/2에 이커 대지에 새로 지은 colonial형 주택으로 이사 왔다. 집 주위에 잔디를 깔고 관상수를 심고 화단을 만들며 뒷마당에 바위가 있어서 화암헌(花岩軒)이라고 이름 지어 주기까지 하여 주거지 미화에 정성을 쏟았다. 나의 아호 정암(庭岩)도 뒷마당 바위와 연관해서 지어진 이름이며 40년간 몸담아 거주지와 나를 동일시하였다. 거주지 미화에 잔디 가꾸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 거주지가 아이들이다 대학에 진학하여 텅 빈 보금자리였던 시절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면 집사람이 앞마당에서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당신 무엇하고 있어요?”  
 “응, 잡초를 뽑고 있죠, 잡초를 뽑고 있으면 온갖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아주 편해져서 극락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  
 나는 그때만 해도 직장생활에 바빠서 잔디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깎

아주고 비가 안와서 가뭄이 들면 물을 주는 것 이외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신장결석으로 요도가 막히어 응급수술을 받고 집에서 휴양하고 있었을 때 처음 마당에 나가서 잡초를 뽑아 보았다. 평소애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시달렸던 나의 일상사에 비하여 잡초를 뽑는 일을 하니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정하여져 집사람이 말하던 극락세계가 따로 없다고 하던 말에 동감하게 되었다.

잡초의 정의는 원하지 않는 곳에 자라는 풀이라는 것이다. 잡초는 우선 보기에 흉하고 번식력이 강해서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성벽이 있어서 비싼 씨를 뿌려 가꾼 잔디를 망쳐버린다. 흔히 눈에 띄는 민들레, 클로버, Crab Grass 등은 끝이 V자형의 농구로 쉽게 뽑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이름을 알 수 있는 잡초 외에도 별별 잡초가 부지기수이다. 그 중에서 여름과 가을에 무성한 잔디풀과 흡사한 잡초가 있는데 번식력이 왕성하여 한줄기에서 뻗어나가 한 뿔 두 뿔 건너서 새끼를 치고 있다. 가을에는 puppy seed보다 작은 씨알들이 한 잎에 무수히 박혀있다. 그 씨가 떨어져서 번식하면 잔디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봐 가슴이 섬뜩해진다. 잡초를 뽑는 일에는 비상한 노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고무장갑을 끼고 인접한 잔디풀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술할 때 지혈용으로 사용했던 clamp를 써서 잔디풀을 비껴가면서 뺏어가는 줄기, 잎사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야 한다. 내 손이 무디고 인내심이 없어서 미처 뽑지 못한 뿌리와 이미 떨어진 씨알들은 해마다 재생하여 선량한 잔디풀을 못살게 해 준다. 옆집에 잔디를 깎으러 온 정원사에게 이 잡초 이름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wild grass라고 알려준다. 소위 wild grass는 내가 대충 뽑은 장소에서 집사람이 섬세한 손으로 차근차근 집중적으로 인내심을 동원하여 뽑아내야 완전 소멸된다. 또 다른 잡초는 클로버처럼 땅 표면에 밀착하여 퍼져나가는데 습한 땅에서 이끼와 함께 끼어서 잔디풀을 침해한다. 여기서는 수술용 currette를 써서 긁어내야한다. 이끼가 낀 곳에는 잡초를 유인하여 공생함으로 보이는 대로 제거해야한다. 단 나무 밑 그늘

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끼는 이끼 자체의 영역이라고 인정하여 내버려둔다. 바위에 낀 이끼처럼 이끼는 그대로의 풍취가 있다. 잔디풀은 가늘고 딱 바로 직립하여 자라는데 여기저기 있어 굵고 옆으로 기울이며 뭉쳐서 자라는 잔디풀이 있는데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과히 눈에 거슬리지 않아서 뽑지 않는다. 이 잔디풀은 가늘게 자라는 잔디풀보다 강인하고 잔디풀의 minority라고 간주하고 내버려둔다.

내가 본격적으로 잡초를 뽑는 일에서 나선 것은 15년 전 은퇴한 후였다. 처음 몇 년간은 내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옆집 사람들에게 궁색해 보인다고 집 속으로 들어오라고 아내가 질책하고 성화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바깥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내의 잔소리가 그쳤다. 잡초를 뽑는 시간은 하루에 두 시간이상 소모하며 쭈그리고 앉아서 대퇴골과 골반의 근육을 씬으로서 core muscle을 달랠시키고 또 손고락을 움직이면 대뇌피질을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한다니 건강에 이득이 생긴다. 금년으로 잡초를 제거한지 15년 만에 언뜻 보기에 거의 잡초가 없는 잔디밭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전무결할 수는 없고 지금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년 이 작업을 계속해야할 것이다. 잔디는 수시로 깎아주어야 잔디의 참모습인 "잔잔하고 부드럽고 균일(均一), 상록(常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준다. 이웃에서 정원사가 와서 잔디를 깎고 가면 이웃집 잔디이지만 내 눈에 즐거움을 주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나는 내 손으로 깎고 내가 늙어가 기운이 모자라면 아내가 도와서 마당을 교대로 돌아가면서 깎는다.

당나라의 백장선사(百丈禪師 720-814)는 일상생활에서 육체적 노동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강조하며 유명한 성명서(Manifesto)를 남겼다.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 즉 영어로 “No Work, No Food” 즉 매일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하여야할 육

의 균형이 깨진 결과라는 그리스 철학 사상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넵포매니아’란 질병이 탄생한 것이다.

그 후 여자의 질환은 대부분 성기의 이상에서 기인한다고 믿어왔다. 그리스 시절부터 자궁이 원위치에 있지 않고 내장 내부를 돌아다니면 ‘히스테리 발작’이 발생한다고 믿었다.

만일 남자가 “나는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의 여성을 경험했다.” 라고 말한다면 나쁘게 볼 때 그는 바람둥이지만 좋게 보면 그는 못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그 같은 표현을 하면 그녀는 색에 미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다. 이 또한 남자의 문제는 머리에, 여자의 문제는 성기에 있다는 이상한 믿음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심한 차별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넵포매니아’라든가 ‘사티루스 현상’ 같은 성차별적인 진단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성욕 과다증’(Hypersexuality)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는 불

체적 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다. 나도 내가 해야 되는 육체적 노동을 남을 시키지 않고 내가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봄, 여름, 가을에 잡초를 뽑고 풀을 깎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낙엽을 긁어모으고 겨울풍설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서 치워주는 일이 망구(望九)를 바라보는 이 상노인의 일상사이다. 나는 잔디를 아내와 같이 깎고나서 patio에 앉아서 맥주를 한 캔을 따서 아내에게 조금 따라주고 남는 것은 비우고 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원하다. 모우임을 새로 하고 잡초가 없는 잔디를 전망하면 성취감이 생겨서 만족한 기분에 잠기어 마음이 평정해진다.

고려 말 이조 초의 나옹선사(懶翁禪師 1320-1376)의 교훈시를 음미해본다.

청산견아무언이생 靑山見我無言以生  
 창공견아무진이생 蒼空見我無塵以生  
 해탈진노해탈담욕 解脫嗔怒解脫貪慾  
 여산여수생애이거 如山如水流生涯以去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산같이 물같이 살다 가라하네

이 시에다 얹혀서 나는 “잡초 없는 잔디는 나를 보고 잔잔히 살라하네”라고 읊어본다. 내가 뜻하는 “잔잔히”의 낱말은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살라는 것이고(Calmness) 즉 적정(寂靜)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다. 정적(Equanimity)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며 파리어로 Upekka 즉 좌선하면서 얻은 평정(Tranquility)에 고도한 집중력요소가 작용하여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고요한 마음가짐이다.

2018/12/2 Pelham Manor, NY에서

## Silent P

Young C. Shin (59, Maryland)

I don't want to be like the *p* in pseudo  
 I don't want to be any thing false  
 I want to be like the *p* in psychology  
 Without me, it won't make any sense

I don't want to be the *p* in ptosis  
 I don't want to keep looking down  
 I want to stay positive and hopeful

Looking up toward the God in heaven  
 I don't want to be the *p* in coup d'état  
 I don't want to be any part of chaos  
 I want to stay away from violence  
 I want to be always in peace

I don't want to be the *p* in pneumonia  
 I don't want to be the *p* in psychosis  
 I want to live healthy, not only physically,  
 I want also to stay mentally healthy

I don't want to be the *p* in psychic  
 I don't want to believe any pseudoscience  
 I want to keep my soul in divinity  
 I want to be *p* in the Psalms

론 성욕 이상 증가(Increased Sexual Desire, 일명 섹스 중독, Sex addiction)는 물론 조울증에서 조증에 빠질 때가끔씩 발생하는 무절제한 성행위나 성에 대한 강박증도 포함한다. 그러나 한번 인간의 두뇌에 각인된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얼마 전인 2008년과 2013년에 각각 ‘넵포매니아’의 일기’와 ‘넵포매니아’이란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어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된 바 있다.

# 넵포매니아

정유석 (64, 북가주)

‘넵포매니아’(Nymphomania)는 색광(色狂, 또는 난음증이나 성욕 이상 항진 증)이란 뜻으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젊은 여자아이를 대표하는 요정인 넵프에서 유래했다. 색광 여인이자라면 한국에서는 대낮부터 남자들을 집안에 끌어 들여 색을 탐하고 결과로 사형까지 당한 조선조 어우동을 꼽겠지만 서양에서는 왕비의 신분으로 자신의 정력을 시험하기 위해 일개 창녀와 그 우위를 겨루었던 로마 제국의 메살리나를 그 전형으로 삼는다

남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Satyriasis라고 하여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Satyr(사티루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상상 속의 동물)에서 유래하는데 이 동물은 숲 속에서 뛰어 놀고 술을 잘 마시며 머리에 뿔이 달리고 귀가 뾰족하며 정력이 좋아 여자를 탐했다고 한다.

‘넵포매니아’가 의학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41년 한 미국 의사가 보스턴에서 발행되는 의학전문지에 발표한 한 여성의 경우였다. “미스 T.

그녀는 매사추세츠 농부의 딸인데 그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역겨운 음탕한’ 말을 했으며 행동으로 보아 조절하기 힘든 성욕을 표시하듯 온 몸을 뒤틀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건강에 이상은 없었으나 우울하고 불안한 가운데 ‘히스테리 발작’을 했다. 질 검사를 했는데 자궁이 크게 늘어났으며 질이 흠뻑 젖었고 음핵이 길게 부풀어 있는 점으로 보아 ‘넵포매니아’란 진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치료로 그 부위에 부식제를 발라 열기를 내렸으며 또 전통적 방식에 따라 사혈(당시 만병통치로 여겼던 피 뽑음)을 시행했고 찬 물로 질을 세척했다. 몇 주 후에 재검사를 해 보니 환자의 상태는 많이 개선되어 넵포매니아를 의심할 만한 증세가 사라졌다. 질 검사를 해 보니까 음핵은 ‘정상적’으로 위축되어 ‘정숙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제국에 군림했던 19세기에는 절제는 가장 큰 미덕이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일방 여성 환자들에게 “영양가 많은 음식은 피하고 초콜릿은 많이 먹지 않으며 불순한 생각, 소설 읽기, 그리고 ‘몰래 숨어하는 오염 행위’(자위를 의미함)를 피해야 합니다.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너무 많이 자극하면 ‘넵포매니아’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또 질병의 원인을 모르면서도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사혈이라든가 부식제를 사용하여 치료했다. 질병은 인체

민비의 친러 정책과 정동파의 집권 일본이 러시아에 굴복하는 것을 본 민비는 일본과 개화파를 밀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동구락부라는 모임 소속 친러, 친미 정객들을 대거 입각시켜서 친일 개화파를 밀어냈습니다.

이 정객들을 정동파라고 했는데,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같이 조선에 온 손탁이라는 여인이 만든 사교단체 정동구락부 인사를 입니다. 정동은 미국, 영국 등 외국 공사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손탁은 정동에 호텔을 운영하며 외교관들과 조선정객이 어울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친 구미, 반일, 친민비 성향의 인사들이었습니다.

**박영효 민비 시해 음모 실패와**

**일본 제 망명**

민비는 일본과 개화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국기무처의 힘에 밀려나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신세에서 벗어나려고 1894년 여름부터 급진개화파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민비는 러시아 공관과 접촉하여 개화파 말살 계획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계획이 대원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일본공사 오카모토 류노스케와 접촉하여 민비 살해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시모노세키 조약 후 삼국간섭으로 대세가 일본에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자 민비는 박영효를 비롯한 개화당을 쓸어버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박영효 귀에 들어갔고, 1895년 7월, 생명의 위험을 느낀 그는 민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효는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 병력을 요구한다음 유길준에게 자기 계획을 알렸습니다. 박영효는 유길준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길준도 대원군과 같이 일본측과 접촉하여 민비 제거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유길준이 자기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길준은 고종에게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밀고했습니다. 7월 6일 고종은 즉시 경무사 이윤용에게 박영효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이윤용은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이었고, 그는 즉시 담장 너머로 체포령을 알린 다음 움직였습니다. 7월 7일 포졸이 박영효 집에 도달했을 때는 박영효는 이미 한강을 통행하는 작은 증기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공덕리 대원군 별장 아소당에 가택연금 돼 있었고 일본 공사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민비 시해 계획을 논의했던 것으로 추측 됩니다.

**유길준 대원군 파에게 포섭되다**

유길준은 일찍이 박규수 문하에서 김옥균 등과 같이 수학했던 개화파의 한 사람 이었고,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일본, 미국에서 유학한 근대문명을 이해 할 수 있는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의 개혁안은 유길준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합니다. 대원군은 손자 이준용을 통해서 유길준을 포섭했습니다. 결국 유길준은 대원군, 이준용이 주도하는 민비 암살 계획에 참여하게 되나 명성황후 암살 전후까지 개화파 인사들은 그와 대원군의 관계를 물렸습니 다. 박영효의 민비 암살계획 폭로 후 민비와 고종의 개화파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그는 본격적으로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비 시해사건(올미사변)**

1894년 10월 4일, 유길준이 의주 관찰사로 좌천 되었습니다. 그의 지방관직 발령으로 이제 개화파는 전부 내각에서 축출된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일본측은 대원군과 접촉하여 10월 8일 새벽에 거사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민비는 척족 민영준이 궁내부대신에 내정된 것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고 있었고, 같은 시각에 민비를 살해한 장본인인 일본 낭인들은 진고개 파성관에서 한성신보

기자들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낭인들은 일본의 열혈 애국청년들이었습니다. 일류 대학 출신들로 무예를 연마하여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조폭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30분에 일본 낭인과 조선 훈련대 병력은 경복궁으로 침입하여 침전인 옥호루에 있는

한지 무려 11년이 지난 후 었습니다. 서재필은 이미 조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백인 아내와 결혼한 미국시민이었습니다.

**서재필은 미국시민이었고 미국의사였다**

1895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그는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YMCA에서

**대원군, 민비 그리고 서재필 (3)**

-2018년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학술대회 강의 초록-

**윤기철 (71, 남가주)**

민비를 시해했습니다. 민비를 칼로 벤 장본인은 물론 일본 낭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병력을 지휘한 인물은 일본 공사 고로였고 조선병력을 지휘한 장본인은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이었습니다. 우범선은 임오군란 직전에 신식군대 별기군 교관이었는데, 그는 중인 출신이었고 생도들은 양반집 자제들이었습니다. 생도들은 교관에게 반발을 했고 교관의 지시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생도들을 모아 놓고 장황한 연설을 한 후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후 친일정권에 의해서 창설된 훈련대 대대장을 맡게 되었으나, 고종과 민비는 훈련대를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불만에 찬 우범선을 고로가 포섭한 것입니다. 올미사변 후 일본으로 망명해 있던 우범선은 자객 고영근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는 우범선의 아들입니다.

거사날 새벽 3시, 공덕리 별장을 습격한 일본 낭인들은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옷으로 변장한 후, 반감제로 대원군을 데리고, 훈련대 병사들과 같이 경복궁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민비 장례식)



**민비 시해 직후, 친일 내각 재집권**

러시아의 삼국간섭에 힘입어 친러정책으로 정권을 잡았던 친러파는 민비가 대원군-개화파-일본에 의해서 제거되자, 일본은 일단 대원군을 떠받들고 개화당 인사들을 대거 재집권 시켰습니다. 당시 친러파였던 이완용이 물러나고 만년 재상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내각이 들어섰습니다. 박영효, 서광범 등이 다시 내각에 들어오고 유길준은 내무대신에 임명했습니다.

**고종 공포에 떨다**

민비가 정적인 대원군과 개화당 그리고 일본 세력에 의해서 살해되자 고종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기 주위에는 자신이 물리치려고 했던 세력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는 고종을 위협했고, 대원군이 자기를 죽이고 대원군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에 시달렸습니다. 심한 불면증으로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궁중에서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언더우드 부인이 직접 가지고 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식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재필 귀국**

민비가 시해된지 두 달여 만인 1895년 12월 25일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

영어공부를 했으며 주말에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신자의 소개로 탄광업으로 돈을 번 독지가인 John Hellenbeck을 알게 되었습니다. 1886년 9월에 헬렌벡은 서재필을 펜실바니아 윌키스바레에 있는 Harry Hillman Academy 고등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도 헬렌벡이 지어 주었습니다. 22살은 동료들보다 훨씬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언어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 준비과정인 콜롬비안 대학 예과 코크리안 스쿨 야간반에 입학했습니다. 예과를 마치자, 헬렌벡은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가 선교활동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 서재필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대역죄를 지은 망명객이어서 돌아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고, 7년 후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법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입학허가가 나온 라파알 대학에 들어가 막노동을 하여 학비를 조달하려고 했으나, 학자금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운 좋은 서재필**

워싱턴에 있는 육군 군의감 도서관에 일본과 중국에서 수집한 의학서적 5000여권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적임자는 일본어,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모교인 힐맨 아카데미 교장택을 방문하고 있던 모 교수가 서재필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는 도서관장에게 소개장을 써 주었습니다. 이 소개장을 들고 도서관을 찾아가자, 성경구절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문과 일본어 그리고 영어에 능통했고 이미 크리스찬인 그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무려 월급 120불이라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재필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콜롬비안 대학 의학부 야간반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의 조지 워싱턴 대학 전신으로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1892년 3월, 조선인 최초로 미국의사가 되었으니, 나이 28세 었습니다.

**Muriel Marry Armstrong과 결혼**

그는 1890년 6월 미국시민이 되었습니다. 1894년 개업의사로 일하던 때에 유리엘과 결혼했습니다. 미국 15대 대통령 뷰캐넌의 누이의 딸이었습니다. 누이의 남편은 조지 암스트롱이었고 그는 미국 철도우편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천만리 타국에 온 서재필은 이제 미국시민, 의사이면서 미주류사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의 결혼식에는 미국에서 이렇다 할 저명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가 15세 때 조선에서 맞이한 명문 거족의 딸 광산김씨를 생각했을까? 젊은 혈기에 저지른 역적 행위로 그 부

인은 독약을 마시고 죽었고 2살난 아들이 굶어 죽었음을 상기했을까? 여러 분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재필의 복권과 귀국 과정**

법무대신 서광범은 서재필을 복권시키고 학부대신 서리에 임명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95년 가을에 워싱턴을 방문한 박영효를 만나고 나서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1895년 11월 10일, 필라델피아를 출발하여 하와이, 일본을 경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스승 후꾸자와 유키치를 만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 정부에서 주는 모든 관직을 거절하고 총추원 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 당시 조선공사이면서 총추원 고문인 미국인 알렌과 똑같은 자격으로 고종을 보좌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귀국한 서재필의 태도**

조국은 그를 버렸습니다. 본인이 반역죄인이라 하여 아무 죄없는 가족과 친지를 죽이거나, 투옥 시켰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망명한 그를 죽이려고 고종은 끈질기게 자객을 보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딱지는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이 절실한 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갑신정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조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나 조선사람들의 기대와는 크게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선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대부분 영어로 했습니다. 연설은 반드시 영어로 했습니다. 물론 통역을 항상 대동했습니다.

전처와 생모의 산소에 가지 않았습니 다.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평민이 되어버린 양아버지가 찾아왔으나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거지가 된 장인이 찾아 왔으나 모른 척 했습니다. 고종을 만나러 갈 때 양복을 입고 읍소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 했습니다. 왕을 알현할 때는 안경을 착용할 수 없는데도 안경을 벗지 않고 고종을 만났습니다. 한국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필립 제이슨이라는 영어 이름을 썼습니다. 서재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할 무렵 돈을 보내 주었던 윤치호는 일기를 매일 썼습니다. 1898년 1월 15일 "서재필의 미국인 친구는 서재필이 가까이 오는 거지를 발길로 차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그는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윤치호가 왜 영어만 쓰냐고 물으니 한국 말을 다 잊었다고 대답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재필의 태도는 동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독립신문 창간**



정부 관료로 있는 윤치호와 유길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국고 보조를 받아 순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이 발간 되었습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을 민중이 우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국민계몽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896년 4월 7일, 순 한글과 영어로 된 독립신문이 발간되었습니다. 한글 학자 주시경 선생이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3면, 영어 1면 이었습니다. 교육 확대, 산업 발전 강조, 의무교육, 과학기술 도입, 식생활과 위생개선 등을 주장했습니다. 중립외교를 주창 <다음면에 계속>



주 광 국 (68, 버지니아)

곳은비가 내리던 2018년 12월 16일 일요일 오후에 작은딸이 살고 있는 LA로 여행을 떠났다. 썬든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겨울의 여행은 항상 즐거웠다. 매일 쾌청하고 따뜻한 날씨에 또 많은 고교 및 대학 동기들이 있어 더욱 더 좋았다. 이번 여행은 큰딸과 2살 된 손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사위는 일에 쫓겨 휴가를 얻지 못하고 일주일 후에 아틀란타의 시택에서 만나기로 해서 내가 그들의 집을 운반해야 했다. 우리는 먼저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 도착해서 보딩 패스를 만들었고 의자에 앉아 큰딸과 손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Delta Air의 Departure Terminal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달려 나가 손자의 car seat와 2 luggages를 받아서 카 시트는 화물로 부치고 luggage를 가지고 곧바로 게이트로 향했다. 아래 층으로 내려가서 똑바로 직진하여 TSA Inspection Station에 도착했다. 검열대에 가지고 온 우리 집 2개와 큰딸의 짐 2개를 검열대에 올라 놓았다. 그때 집에서 가지고 온 컴퓨터가 들어있는 가방이 보이질 않았다. 순간 큰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었던 의자에 가방을 두고 온 생각이 들었

다. 나는 그길로 검열대를 뛰어나와 처음에 앉아 있었던 의자 쪽으로 뛰어 달렸다. 너무 당황하여 머릿속이 하얘져서 앉아 있었던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비행기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TSA Station으로 빨리 돌아가야 했다. 헐떡거리며 돌아와 security personnel에게 컴퓨터가방을 공항의자에 두고 온 사실을 이야기하여 협조를 구했으나 지금 이 시각에 할 수 있는 일은 Lost & Found에 보고하는 일 뿐이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착잡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후 LA에 있는 작은 딸에게 전화했다. 지금 비행기가 곧 출발할 것과 컴퓨터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렸다. 아내는 컴퓨터를 잃어버려 모든 우리의 인적사항과 중요한 서류가 노출되는 것을 무척 우려했다. 나는 password를 알아야 컴퓨터가 열린다고 안심을 시켰지만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쉽게 열릴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컴퓨터는 나의 생활의 일부 아니 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 TV를 바보상자라 부르는데 컴퓨터는 천재 상자 또는 두뇌상자라 불러야 될 것 같다. 사실 컴퓨터에는 많은 것이 저장되어 있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 및 서류, 나의 두뇌에 보관할 수 없는 그러나 기억하고 싶은 상식, 지식과 유모아 등, 보관해온 많은 사진과 비디오 파일, 그리고 여러 편의 영화, 드라마, 여행기, 음악 및 스포츠 프로그램, 골프 렛스 등등 많은 인포메이션 파일이 들어있었다. 또 서울의 대 미주동창회 Website (snucmaus.org)의 웹 마스터로 일하면서 프로그램을 위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어 컴퓨터가 분실되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비행기가 LA 공항에 착륙 하자마자 마중 나온 작은딸에게 알렸다. 그런데 뜻밖에 좋은 소식을 받았다. 레이건 공항에서 나의 컴퓨터를 찾아서 공항 경찰이 보관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너무 너무 기뻐다.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과 은전과 아들을 되찾는 비유 말씀이 떠올랐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나대로 요사이 테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주인없는 검은 가방이 공항의자에 놓여 있으면 누군가가 security나 police에 보고하여 보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작은딸 집에 도착하여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작은딸은 나에게서 컴퓨터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 전화를 해서 컴퓨터가 들어있는 가방을 공항의자에 두고 비행기를 탔다고 하여 협조를 구했으나 지금 일요일 오후라 다음 날 Lost & Found에 전화해 보라고 전화번호만 받았다. 곧 다시 에어포트 인포메이션에 전화해서 한 시간 전에 컴퓨터가방을 공항 의자에 두고 탑승했으니 그 자리에 가서 체크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지금 자기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하고 check-in한 델타로 연결시켜 주었다고 한다. 델타 에어에서도 많은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빠서 협조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급한 마음에 다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지금 아버지가 컴퓨터를 분실해서 어머니한테 많은 핀

잔과 야단을 맞으며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져 즐겁게 계획했던 휴가를 망치게 되므로 누군가 컴퓨터가방을 놓았었던 델타 에어 근처 의자석을 돌아봐 달라고 간청했다. 전화를 받은 Barbara가 자신이 그 주위를 돌아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해주겠다고 했었다. 약 한 시간이 지난 뒤 Barbara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델타 에어 근처에서 TSA station까지 돌아보면서 찾았으나 가방을 찾지 못했다. 그는 만나는 보안요원이나 폴리스를 보면 컴퓨터가방 이야기를 하면서 협조를 부탁했다고 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컴퓨터가방을 security에게 알려서 절차에 따라 폴리스에 보고되고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Barbara가 연락을 받고 나의 작은딸에게 전화해서 나의 컴퓨터가 폴리스에 보관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폴리스에 전화하니 컴퓨터가방을 체크하고 Lost & Found로 보냈다고 했다. 그곳에 연락하니 워싱턴으로 돌아올 때 찾아가던가 아니면 Fedex로 작은딸 집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

3일 후에 드디어 그동안 가슴을 졸이고 있었던 나에게 컴퓨터가 돌아왔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받은 아주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나의 두 딸의 노력과 Reagan Airport Information Desk에 있는 Barbara의 봉사 협조로 나의 캘리포니아 여행은 한결 더 기분 좋은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참으로 미국이 양심적이고 능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한 번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에서 계속> 했습니다. 유길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중이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내 외의 사정, 조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도했으며, 뇌물 수수, 관리들의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신문이 순 한글로 발간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필이 얼마나 조선의 근본적인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 황금빛의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만들었다고 하는 한글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글자입니다. 이 한글이 무려 500년 가까이 일반 백성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 정부, 심지어 한글 박물관에서도 지적해 주지 않고 "위대한 글자"라는 것만 강조 합니다. 한글이 공식 문자가 된 것은 대한제국 선포된 후였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문서, 책 등은 거의 전부가 한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양반 집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자연히 백성들이 우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장 사서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니 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해방 후인 1945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 인구의 겨우 27% 였다고 하니 당시에는 오죽 했겠습니까?

독립문 건립



지금 독립문이 세워진 자리 근처에 영은문이 있었고 이 문을 통과하면 모화관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영은문을 통과하면 모화관에서 조선 대신들이 그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청이 조선보다 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설 이었습니다. 개화파 인사들은 조선이 일본이나 서양 제국에 뒤떨어지게 된 원인이 오랫동안 중국에 예속되었기 때문 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빨리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나라가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으로 부터의 독립을 상징하기 위해서 영은문 대신 독립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독립협회 결성

독립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협회였습니다. 1896년 7월 2일에 이완용, 남궁억, 박영효, 김가진, 안경수 등과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결성했습니다. 1897년 11월 20일, 개신문 축소관인 독립문이 영은문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1200년 동안 속국이자 종으로 살아왔다.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국가임을 천명한다." 라고.

서재필이 주도했던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협회의 독립의 의미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게 먹히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인식 되어 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재필의 청년 계몽

서재필은 매주 배재학당에서 젊은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인권개념, 사회계약론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 주시경, 신홍우, 김규식 등이 서재필의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이승만은 서재필에게 크게 감화를 받았고 김규식 등과 함께 협성회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서재필은 배재학당 졸업식에서 토론대회를 여는 등 청년들에게 토론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 다음호에 마지막 편이 계속됩니다.



조 동 준 (64, 남가주)

돌아갈 수 없는 50년 전을 돌아본다. 나는 그때 20대 였었지. 아 그리운 시절이여! 너무나 멀리 떠나와 버렸군. 아득한 그때가 그리워진다. 지금의 이런 시간이 올 줄 상상도 못하면서 살아왔다. 볼티모어 어느 거리에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미국생활을 시작했었는지. 조금은 부푼 꿈을 가지고서 말이다. 그런 세월의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서 50년을 그냥 살아왔더니 믿 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처지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이제는 남은 시간은 꼭꼭 씹어가면서 살아야겠다. 실은 그동안 이 나라 50개 주에서 동서남북을 여기저기 헤쳐 다니며 살아온 셈이다. 동서를 잇는 대륙간 자동차 여행도 하면서 말이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국 해군에 들어가서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하고는 바로 한국을 떠나서 1967년에 미국으로 떠나왔다. 가난한 한국정부에서 허락하는 100달러를 손에 들고서, 비행기 표는 취직할 병원에서 선불해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말이다. 생각하면 그 당시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었다. 그때는 우리는 가능하면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대세였다. 의대 동기동창 130명 중 84명이 미국으로 입국했으니 말이다. 독일의 광부 그리고 간호사와 같은 처지로 우리는 모자

라는 의사 보증을 위하여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으로 수입된 셈이다. 물론 이곳 의사 자격시험을 치고 들어왔다. 그 후 5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당시의 의사들 거의 모두가 은퇴해 현역에서 떠나있다. 그동안 미국사회에 들어온 외국 의사들의 친척도 많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다. 씨를 뿌린 것 같이 이민자가 여기저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다. 이민자들이 이렇게 여러 면으로 해서 이 나라를 찾아들어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50년을 뒤돌아보면 번개같이 지나가 버린 세월, 이 나라에서의 세월을 후회는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살지 못한 그동안의 세월이 아쉽고 도독을 맞은 것 같다. 그동안 물질적인 면에서는 별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지만, 잃어버린 것도 생각해 보면 많이 있다. 우선 70년대 80년대 음악 이야기를 한다면, 그 노래들은 모두 생소한 것들 뿐이다. 한국에서 살지를 않았으니 알 수가 없다. 그 당시의 노래 뿐만이 아니고 그곳 생활을 몽땅 빼먹은 셈이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부모님을 두고 떠나왔으니 부모님과 함께 살아보지도 못한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을 그냥 떠나보낸 것이 마음에 걸리고 애통한 일이다. 얼마나 자식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목이 메이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함께 살아온 많은 친구들과 정을 꿋고 왔으니 돌이켜보면 그 또한 엄청난 것을 잃고 살아온 셈이다. 이제는 한국 국적에서 미국 국적으로 영원히 바뀌었다.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나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동안 영어의 장벽, 이곳의 문화의 갈등 없이 내 고향에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업치가 없는 일이지만 아쉬워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왜-웬, 답십리 촌놈이

오전에 명동 모 병원에 거의 무의식 상태로 장기간 입원해 계신 친척 어른을 찾아뵙고 난후엔 어렸을 적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살던 답십리 옛집을 친구와 함께 찾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나 학생때 우리 집에 그토록 자주 왔었던 친구인지라 오히려 나보다도 더 잘 아는것 같았다. 경로당에는 마침 나의 아버님 함자를 아시는 노인분이 한 분 계서 나의 옛집을 찾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어주셨다. 조그만 우리 옛집 대신 현대식 5층집이 들어있었고 그 집주인도 만나볼 수 있었다. 감개무량한 나머지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았다. 동대문구 답십리 153의 8호, 이곳이 내가 어렸을적 자랐던 집의 번지수다. 고향이 가평이라곤 하지만 종로에서 태어나 해방이 되고 얼마 안 있어 논밭으로만 돼 있던 허허벌판이던 그곳에 터를 잡고 우리 7남매가 학교 다니며 자라던 곳 답십리, 학교가 둘 다 종로에 있어, 가장 먼 곳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지만 제일 먼저 학교에 도착하는 측에 들어가며, 개근은 물론이고, 녀석하지는 못하나 수업료는 제일 먼저 내는것으로 알고 다른 것은 못해도 으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자랐다. 5형제가 다 같은 학교이며, 두 분 누님들도 같은 여학교이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 이렇게 옛날 자랐던 집 근처에 오니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어찌 막을 도리가 없구나. 옛 우리 집터에 현재 사는 집주인에게, 내 친구 왈 “이 집터가 명당자리입니다” 하고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부모님 같은 형님내외분

오늘은 큰 딸이 미국에서 서울에 도착하는 날이다. 오늘 이전까지는 우리 부부만의 계획대로의 행사였으나 오늘 이후부터는 딸들(작은 딸은 10월 5일 도착 예정)위주의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니, 들레 신세(?) 아니면 뒷방차지 신세로 전락되는 게 아닌지?

침대에서 그들에게 자진(?)해서 양보하고 우리 부부는 대청(?)마루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자야 할 것 같다. 조카사위딸 아파트가 비워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호의로 빌려쓰고 있는데 너무 편리하고 아늑하여, 꼭 내 집에 있는 것 같다. 이곳보다 두 층 위에 살고 계시는 형님(내 바로 위)내외분의 자상하신 배려로 더욱 편리하게 지내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뿐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물론, 대부분 저녁은 친구들과 밖에서 먹는 데도 저녁밥상을 차려놓으시는 배려, 형님내외라고 보기 보담 부모님같은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내외를 돌보아주심에 무어라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좋은 형님이신데 건강이 좋지않으셔 늘 내 마음이 가볍지가 않다.

국가에 충성스럽고(33년 전 학위취득 통과만 확인한 후 졸업식도 참석 않고 귀국할 정도임) 가정에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형제들께겐 물론 동생친구들에게조차 자상해 그들 자녀들의 결혼까지 챙기는지라 내가 고국을 오랫동안 떠나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내 친구들과 왕래들을 하고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자랑스러운 형님이시고 존경스러운 내 형님이다.

자랑스런 사촌형

44년전 이모님(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전해 듣고 것처럼 슬퍼하고 통곡했던, 이종사촌형! 그 형님 자신도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세상분이 아니시다. 87년 부산에서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은 어렵게 사촌동생과 연락이 되어 성묘가자 하니 주저주저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고인의 유언대로 의과대학교에 연구용으로 고인을 기증했다” 하지 않는가! 과연 그

형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형님이다.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그 모든 것을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남을 위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내놓으실 분이였으니! 형님, 존경합니다.

딸의 계획-산사체험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오늘은 경기도 여주 신륵사를 보러 가기로한 날이다. 오래전부터 딸이 산사체험을 하



고싶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찾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어렵사리 연이 닿아 신륵사로 결정되었다.

신라 진평왕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로 고려 공민왕때 왕사였던 나옹 화상이 입적한 곳으로 유명하며 그의 제자인 무학대사가 스승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석등과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기리기위해 세운 탑이 볼만하다니 기대해 봄직하다.



나에게는 여주 이전하면 지금은 70세가 넘었지만 50여 년 전 여주에서 큰 사촌형님께 갓 시집오신 아릿다우셨던 형수님 생각이 떠오르고(특히 잘생긴 콧잔등에 송을송을 맺힌 땀방울은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

중국 황주의 어마어마하게 큰 영은사도 보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조그마한, 대웅전도 없는 절, 신륵사가 더욱 마음에 든다. 절 바로 근처에는 남한강이 흐르며 그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정자가 있고, 물 위에는 황포돛배(그 옛날 여주에서 쌀등을 실어다가 마포 포구에 부려놓았던 배)가 한가로이 떠 있는 그야말로 한쪽의 그림을 보는것 같은 정경이다.

서울 구경

오늘은 쉬는 날로 선언했으니 처와 딸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겠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오늘은 철저히 게으름을 피우기로 가족들과 약속한 날이라 그들이 더욱 좋아하는 것 같다.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일정표에 따라 행동하므로 때론 가족들로부터 항의(?)와 불평을 듣기도 했지만 오늘날은 예외 오히려 그들이 나를 깨웠다. 대신 형님께 전화하여 함께 무언가 일을 저질러야겠다. 아마 형님도 기대하고 계시지 모르겠다.

형님께 전화를 하니 어린애처럼 좋아하신다. 일반버스를 타고(전철의 단점은 달릴 때 시가지 구경을 할 수 없음) 서울구경이 시작됐다. 시작은 정릉, 얼마를 달리니 해화동 로터리가 나오는가 했더니 곧 이어 왼쪽에 서울대 병원을 두고 오른쪽으로 창경궁을 끼고 돌아 조금 달리니 이내 돈화문과 비원(창덕궁)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바로 옆에 계동 현대 사옥이 불쑥 나타난다. 곧 이어 가회동, 얼마 안가 안국동 로터리가 나오고 왼쪽으로 그 유명한 문화의 거리 인사동 입구가 보이며 한국일보 사옥을 지나 옛날 중앙청(지금은 월려 그곳에 박물관이 들어섰다함), 오른쪽 깊숙이 경복궁이 저 멀리 보이고, 왼쪽으로 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광화문 대로가 위엄있게 나타난다. 세종로 대로상 중간 오른쪽엔 세종문화회관, 왼쪽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고, 세종로 네거리에는 모든 이들의 추앙을 받으시는

이순신 제독의 동상이 우뚝 서 계시다. 이곳에서 하차한 후, 옛날 화신백화점, 종각쪽으로 돌려 한일관으로 갔다. 옛 추억을 되살리면서 형님은 냉면, 나는 비빔밥을 시켜먹으니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몇 십년만이나-. 정릉집으로 되돌아 오는 도중에 옛날 동송동 거리를 지나게 되었다. 이름도 대학로로 바뀌었고 연

극과 문화의 거리로 바뀌어 데모때만 빼곤 조용했던 학문의 거리가 좀 시끄러워진 거리로 바뀐 것 같은 점이 좀 아쉽다.

청평방문, 쏘가리 매운탕

숙소문제로 차질이 생겨 계획했던 일정을 다 소화 못하고 어젯밤에 서울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 화위복이랄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고국방문 첫날 인천공항 마중부터 이제까지(아니 이 녀석과 내가 지옥에 갈 때까지?) 헌신적으로 우정이상의 정으로 이곳저곳 더 보여주지 못해 애를 태우던 친구 그녀석이 그의 부모님 성묘를 가족과 함께 갈수 있음이요 둘째 이유로는, 어제의 강행군으로 피로해졌을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동안, 뽀뽀한 일정상 업무도 못했던 나 홀로 청평방문을 할수 있어서였다. 청평은 내 고향 가평 바로 근처이기도 하지만 작은 누님이 꽤 오래 사셨던 곳이며, 그런 연유로 40 여년전 우리 집사람과 한참 열애시 뽀뽀나게 오르내리던 애작이 가는 곳이기도 하다.

버스와 전철을 번갈아 갈아타고 드디어 청량리역 앞에 당도하니 그동안 많이 변했으나 청량리 로터리는 그런대로 알아볼 수 있었다. 춘천행 기차표를 사서 열차에 몸을 실으니 감개가 남다르게 떠오른다. 출발 후 얼마 안 있어 금곡을 지난다는 기내방송이 있다. 금곡은 부모님이 영면하시는 곳, 천주교 묘지가 있는 곳이며, 내일 하와이에 사는 딸이 서울에 도착하면 모두 다시 와야 할 곳이다. 또 잠깐 사이에 긴 터널을 지나니 마석이다. 그 옛날 버스를 타고 청평을 가려면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가야 마석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는 꽤 험준한 산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마석이면 곧 대성리가 나올 것이며 이내 청평 도착은 몇 분 이내다. 정다운 청평역에 내리니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역시 시골은 시골이다. 난 오히려 그런 게 좋다. 너무 매끄럽게 발전해 버렸다면 구태어 내가 이곳을 찾을 필요가 없겠지. 청평 수력발전소를 돌아 청평호반을 따라 꼬불꼬불 길을 가노라면 내설악이 나오는데 십대때는 천렵을 한 후에 쏘가리매운탕을 해먹고 각종 산채나물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 20대 때는 누님집 방문하자는 핑계를 대고 우리 집사람과 그야말로 뽀뽀나게 이곳을 왔었던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난다. 철지난 한가한 한 음식점에서 옛 추억이 절절이 스며있는 쏘가리매운탕을 주문해 먹으면서 생각해 본다. 이걸 먹으러 워싱턴에서부터 먼길을 마다않고 온 내가 너무 sentimental한게 아닌가? 온 가족과 함께 다시 와야겠다.

온 가족이 서울에서 만나다

오늘은 한국의 thanksgiving day인 추석 하루전 날, 작은 딸애가 하와이에서 서울에 도착하는 날이다.

아내와 큰딸과 함께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 드디어 인사동에 입성(?)하

니, 과연 문화의 거리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다. 공예시며, 서도에 관한 모든 게 구비된 가게(가게라해서 실례-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네)-이곳도 얼마 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께서 다녀 가셨단다. 맛있는 토속 음식점, 녹차, 국화차 등을 파는 다실, 갤러리 등등이 수없이 많고 행인과 자동차가 뒤범벅이 되어 다니고 옛등을 파는 간이 노점상들이 여기저기 있는 참으로 포근하며 절로 정감이 가는 한국 제일의 토종(?)문화의 거리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몇 가지 기념품을 산후 맷돌에 돌려 만들었다는 심심한 순두부찌개와 보리밥으로 점심을 들고 둘째 딸을 마중하러 인천공항으로 갔다. 멀리 떨어져 사는 관계로 우리 네 식구가 함께 하기가 쉽지않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다함께 모일 수 있어 너무 좋다. 외할머니 살아계실때 더 만나뵙고 가까워지고 싶다는 딸애들이 기특해 추석을 전후해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게 만든 게 그 한 연유다.

정릉 집으로 오는 공항버스에서 벌써 두 번째의 전화를 형으로부터 받았으며 현재 어디를 통과하고 있으며 얼마나 걸려 집에 도착할 거라는 보고(?)를 드려야만 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애들의 큰 아버지인 형님 내외분께서 눈이 빠지게 우리들, 정확히 말해 조카들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예고하신대로 불편하신 몸으로 손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러시아산 썬초대형 바다가재, 새우 등을 한 상자 사오셨다. 불편한 몸을 끌고, 꽤나 무거운 짐을 버스를 타고 사오신 형님! 우리 아이들도 큰 아버지의 자애로우신 큰 사랑을 알리라 확신한다.

얼마 전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이 형님의 딸, 내 조카딸이 워싱턴의 내 집을 방문했을 때 하던 말이 생각난다. “작은 아버지, 어쩌면 말씀하시는 제스처며, 일 진행하는 방식, 마음 씀씀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제 아버님과 이렇게 똑 같으실 수가 없어요”. “아무렴, 우리가 누군데” 하고 내가 대답하던 생각이 난다.

추석과 성묘

오늘은 한국의 thanksgiving day, 추석! 이러한 날을 만들어 우리 선조들은 후손들의 만남과 화목을 도모하려 했을 것이다.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 화목, 화목, 화목.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 어느 조직에서건 화목이 제일의 덕목이 아니겠는가? 화목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으며, 실사 이룬 다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아침에 형님 댁으로 가 차례를 지내고 나니 감회가 너무 벅차다. 손녀들과의 만남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늘 내려다보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생각되는 부모님들! 40년이 넘는 세월이나 늘 뵙고 싶었고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은 추석 다음날이다. 아침 일찍 성묘를 하러갔다. 아랫동서가 동행을 해주었다.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부모님께 절을 올릴 때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없었는데, 자식들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도 그리웠던 부모님! 언제 다시 방문할 수 있을지요, 저희가 살아 있을 때까지, 손녀들이 저희 없이 언제 다시 방문하겠어요.

하여튼, 자식들에게 제사며 성묘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줄게 이번 여행 중 큰 보람이다.

가족 잔치

오늘은 친척들을 한일관으로 초대하여 한턱내려는 날이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계획한 일이고 고국방문이유 중 중요한 행사 중 (다음면에 계속)

# 기해년(己亥)에 부치는 글

이 덕 승 (61, 남가주)



2018년의 북은해가 지나가고 2019년 새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해(陰曆)로는 기해년(己亥)으로 12지간(十二支干)의 동물 가운데 돼지에 해당하고 기(己)가 천간(天干)에서 여섯 번째로 오행(五行)의 황색(黃色)을 나타내기 때문에 60년 만에 맞는 황금돼지 띠가 됩니다. 돼지의 조상은 야생돼지로 기원 전 1만 2000년 무렵에 가축화가 되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해를 맞이해서 돼지에 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돼지는 소나 양이나 닭과 더불어 고대 농경 원시 부족사회에서 신의 화신으로 믿었던 동물입니다. 고사(告祀)를 지낼 때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관습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가 부(富)를 축적해 주는 화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돼지는 한문으로 돈(豚)인데 그 발음이 돈(金錢)이고 보니 부(富)의 상징으로 둔갑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돈을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저금통은 모두 돼지형상입니다. 개업식을 할 때 돼지 입에 지폐를 끼워주는 행위는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는 소원에서 유래된 것이고 돼지꿈을 꾸 다음날에는 반드시 복권을 사라는 말이 생겨난 듯 싶습니다.

셋째로 돼지는 다산(多産)하는 동물입니다. 임신기간이 114일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번에 8-12 마리의 새끼를 배출합니다. 예전에 이발관에 가면 커다란 어미돼지가 누워있고 새끼들이 젖을 먹는 사진이나 그림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는 돼지의 다산(多産)이 성공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넷째로 돼지는 편히 놀면서 많이 먹고 살찌워 인간의 식생활에 이바지 해

주는 희생동물입니다. 돼지고기의 효능은 대단합니다. 첫째로 비타민 B1이 소고기 보다 1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둘째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로 흰 민들레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몸 속의 중금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우리가 통상 갖고 있는 돼지에 관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돼지우리와 같다’: 물건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한 것을 볼 때 ‘돼지우리와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돼지를 좁은 곳에 여러 마리씩 길렀기 때문에 배설한 곳에 누워 자기도 하지만 원래 돼지는 자는 곳과 화장실을 구분해서 사는 동물입니다. 결국 인간이 돼지를 지저분한 동물로 만든 것입니다.

‘돼지처럼 먹는다’: 우리가 음식을 닥치는 대로 마구 먹을 때 돼지처럼 먹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원래 잡식성인 돼지는 풀뿌리나 나무 열매 등 아무것이나 잘 먹지만 배가 터질 정도로 무한정 먹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먹다가 배가 부르면 먹이 통을 떠나게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돼지의 평균 체질량(body mass index)은 15 이하인데 한국인 체질량은 남성이 23.4, 여성이 24.3으로 돼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말하자면 돼지는 사람보다 몸매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똥똥보를 돼지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집간 잠장돼지 순둥이’: 김병규 작가가 지은 어린이 동화책에서 돼지를 순둥이로 묘사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국 속담에 ‘집돼지가 성내면 호랑이도 피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알잡아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60년 만에 찾아 온 황금돼지 띠를 맞이해서 우리 선 후배 동문 가정마다 돼지 저금통의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늘어나며 가끔씩 돼지꿈을 꾸면서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면에서 계속> 하나이다. 형제들중 유일하게 한국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33년전 형은 미국에서 공부 끝내고 조국에 봉사해야 한다고 부라부라 귀국한 사람이지만) 작은 형님과 형수님은 성묘를 위시해 집안 대소사에 우리 형제를 대표해 묵묵히 30년 이상을 힘들고 굶은 일 다 해오셨기에 이번만은 내가 한번만이라도 대신하고 싶어서 낱짜를 잡고 모임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친척들을 초대하신걸로 알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

80세가 넘으신 사촌형님들, 이종사촌누님들이 계신가하면, 십대의 손자뻘 되는 친척들과 감격의 해후는 물론 뜻 깊고도 재미나는 시간을 가졌음은 물론이다. 또한 두 딸들을 친척들에게 인사시키고 친척 호칭법에 따라 일일이 설명을 했지만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는 미지수(?)다.

**귀로**  
오늘은 20년만의 25일간 고국방문여행의 행중 마지막 날이다. 모든 것이 오직 감사할 뿐이다. 우선 무사하게 여행을 끝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족들 우애 있음에 감사하며, 좋은 스승님들 가르침에 감사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남에 감사하며, 민족의 정기넘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특히 저를 낳아 주시고 역경을 겪으시면 서도 말씀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

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저 세상에서도 이날 이 때까지 늘 보호와 격려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형님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처남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딸아이들이 외할머니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떠난 후 두어 시간 있다가 따로 제 집, 제 남편이 있는 하와이로 떠날 작은 딸을 텅그렁 혼자 인천공항에 남겨두고 우리 세 식구만 워싱턴으로 떠나려니 걱정과 더불어 가슴이 좀 허전해진다. 다 큰 어른인데 말이다. 나이가 아무리 들고 어른이 되었어도 내게는 늘 어린 자식으로 느껴지는 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일까? 아니면 나만의 유별난 상념일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들을 늘 이와 똑같은 생각으로 대하셨는지!

이번엔 비행기 안에서 하루를 벌었다. 서울 출발이 10월 11일 오후 4시 30분이고 로스앤젤레스 도착 두 시간을 앞둔 지점을 통과중인데 이곳 시간으로 오전 9시, 아직도 10월 11일이다. 서울시간은 10월 12일 오전 1시이니 말이다. 휴가기간이 덩으로 하루 더는 기분이라 좋고, 더욱이 인생여정에서 하루를 더디게 늙어짐에 나쁠 것 하나도 없지. 옛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수하들을 아니 보낸 곳이 없을 정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중 한 곳이 한국 남해안

# 나의 병원

방 준 재 (70, 대뉴욕)

지난주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내가 적을 두고 있는 병원의 의사회(Medical Board) 여사무원이 건 전화였다. 옛그제 있었던 병원 의사회 주최 연말 만찬 석상에서 나의 40년 봉사를 그 자리에서 기리고 싶다고 했다. 내가 몇 년째로 이렇게 의사노릇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 날들이 40년이 되고 그 숫자를 들썩이니 그 숫자에 이질감이랄까 묘한 느낌이 들기에 “40 year of service?”라고 나는 되물었다. 그리고 “That long?”하며 내가 그만큼 늙음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듯 반문(反問)을 했다.

사실 되돌아보니 지금 적을 두고 있는 병원과의 인연은 1975년부터이다. 미국에 이민을 오기는 1973년 여름 김포공항을 통해 뉴욕의 JFK에 도착했다. 나중에 제2부가 되는 “나의 사무실 편”에서 닥터 시걸과의 기연(奇緣)을 잠깐 서술하겠지만 그의 사무실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한 후 지금 있는 병원보다 규모가 훨씬 큰 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하다가 다루는 질병이 너무나 만성질환만 보는 듯하여 나의 수련과정을 지금의 병원으로 바꾸고 내과 수련 3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고 개업으로 나왔다. 병원에서는 심장내과 펠로우쉽을 주긴 했어도 (I

did not come to this country to die from over-work!) 과로로 죽으려고 이 나라에 온 것은 아니라며 그 펠로 수련과정을 떠나버렸다.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가장 핫(Hot)한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의 병원이나 사무실이 있는 소위 파스롭(Park Slope)지역입니다. 나의 “사무실 편”에서 또 한 번 언급하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1978년 내 사무실이 있는 여덟 가구(8 families)가 있는 사무실을 16만 5천 달러에 건물주인이 사라고 했을 때이다. 갓 개업을 한 의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말했다가 월세로 지난 40년을 버텨왔더니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1,200만 달러에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하기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30년 40년 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때 샀더라면 나도 남들 앞에서 돈 많은 건물주라고 뽐뽐거릴 수 있을는지--.

지금 브루클린의 심장부 두 세 블럭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병원에 한번 와 보십시오. 전쟁터가 이런 것인지 기존 건물 앞에 새 건물을 지은 것이 지난 이 삼년 전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삼년은 더 이럴 테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사 일을 아닌 듯. 그러나 주변의 타 병원들이 하나 둘 파산(bankrupt)하고 넘어질 때 우리 병원은 성장일로이니 재정적으로는 든든한 듯합니다. 우리병원은 1881년에 미국 최초의 감리교단(Methodist Church)계(系)의 병원으로 현재 651개의 병상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이자 의사 수련 병원입니다. 나의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이기도 합니다.

## 고요함

나두섭(73, 남가주)

잔잔한 호숫가에 비취진  
꽃을 안은 크고 작은 집들  
하늘로 솟은 작은 교회의 종탑

솟아오른 산등성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니  
적막함을 더하네

때론 소슬한 바람 불어  
물위의 반영 요동쳐도  
다시 찾아오는 고요함  
사공의 뱃노래에 취하며  
호수 위에 나의 꿈 수 놓으리



의 어느 한 섬이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낱짜 변경선상 지점을 비행기론 힘들 것 같으니 작은 쪽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매일 하루에 하루씩 버니 결코 영원히 늙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 어처구니없는 망상을 잠시 해보고 그 황당함에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와싱턴에 가까워질수록 휴가는 끝나가며 현실로 복귀하는 것인데, 우선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과 건강을 주신 초월적 존재이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와싱턴에 돌아가면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고, 그러나 일의 양을 좀 줄여야겠다. 또한 은퇴준비를 서서히 시작해야겠다. 은퇴를 한다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이면 도심(서울 같은데서)에서? 시골에서? 시골이면 서울 근처의(청평, 가평, 양주, 양평 등 좀 인연이 있는 곳이 낫겠지), 아니면 아주 먼 강원도 설악산 근처 혹은 바다가 지척에 있는 속초 등이 어떨까? 그것도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미국에서? 그러면 어디가 괜찮을

까? 딸이 사는 하와이? 아니면, 한국과도 가깝고 또 딸과도 가까운 곳? 그럼, San Diego? 이도 저도 아니면, 현재 살고 있으며 생애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워싱턴은 어떤가? 금방 결론 내릴 간단한 문제가 아닐뿐더러 그리 쉽게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될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결정사항인것 같다.

그러나 대강 윤곽은 잡히는 것 같다. 감상적으로야 백번 한국이나, 실제 면에선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오래 산 곳이 어떨까? 이곳을 은퇴 본거지로 삼고 더 늙어지면 자식을 근처로 옮김이 옳지 않을까? 아-아, 건강할 때 좀 더 여행을 해야겠다.

25일간 고국 방문여행의 마지막 1시간 30분! 워싱턴 델레스 공항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이제 고국에 대한 향수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아씨,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등을 ipod를 통해 듣는 것으로 달래고, 어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되돌아 와야겠다.

근사한 여행이었지!  
세 식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빙그레 웃는다.

# 2018~2019 정균희 회기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1989 오무연	1991 강민종
1999 박종철	2000 황필규
2001 김태근	2002 최태웅
2003 조수정	

— 는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 VA

### 36th CONVENTION DONATION

김해암(58) 500	이운순(58) 500	채규철(59) 200	권기홍(60) 500	이종석(60) 100
황현상(61) 100	박종승(62) 100	정정수(62) 300	김계운(63) 25	김태웅(63) 1000
조한원(63) 500	권정덕(64) 200	이홍표(64) 2000	허선행(64) 200	전영균(65) 100
김진수(66) 100	윤효윤(69) 100	김성환(71) 1000	배성호(71) 100	온기철(71) 1000
이원택(71) 75	박찬호(72) 500	오용호(72) 1000	이기진(72) 500	정균희(72) 5000
나두섭(73) 200	문대옥(73) 300	서인석(73) 500	구재훈(74) 300	김원정(75) 10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1000	한승신(76) 2000	차민영(82) 서울메디칼	5000

### GENERAL DONATION

노용면(55) 200	서상철(56) 75	임종원(57) 75	김석희(58) 100	김해암(58) 50
문석면(58) 150	강상진(59) 275	김교안(59) 50	채규철(59) 200	최용천(59) 50
최종진(59) 100	한성업(59) 100	권기홍(60) 500	이경화(60) 75	한성수(59) 75
이재승(61) 2000	진창건(61) 75	황현상(61) 50	김한중(62) 200	민경환(62) 75
박종승(62) 100	박찬형(62) 100	권영조(63) 500	김현철(63) 75	송용덕(63) 100
선우건영(63) 125	신경호(63) 75	이범세(63) 125	장인호(63) 75	진병학(63) 100
이홍표(64) 175	전희택(64) 250	최준희(64) 175	허선행(64) 100	박수안(65) 75
이재진(65) 200	임현재(65) 100	정길화(65) 100	김의신(66) 1000	장한교(66) 75
정량수(66) 75	조관상(66) 50	강명식(67) 75	김성철(67) 75	이병순(68) 100
이상훈(68) 175	차재철(68) 75	박수용(69) 375	최종일(69) 100	서량(69) 275
김형달(70) 100	박찬진(70) 75	조남현(70) 50	오석일(70) 300	곽승용(71) 200
이성길(71) 980	오용호(72) 200	박인영(75) 50		

\*김의신-멘토상 수상 상금 전액 \*이성길-Silent auction profit

### CHARITY FUND

채규철(59) 200	최태순(61) 25	박종승(62) 100	김현철(63) 75	신두식(64) 100
허선행(64) 100	홍선경(64) 100	채도경(65) 75	김창구(71) 100	김웅진(74)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 SCHOLARSHIP FUND

김학륜(58) 100	김은성(59) 100	채규철(59) 200	이재승(61) 1000	황현상(61) 100
박종승(62) 100	이기범(62) 375	김재종(63) 75	한기현(63) 125	양운택(64) 100
이홍표(64) 100	허선행(64) 100	이광준(65) 75	이영균(67) 100	서운석(68) 500
홍광신(68) 100	배성호(71) 100	오동환(71) 500	조남현(71) 100	조세진(71) 125
김효순(71) 125	김웅진(74) 100	김자역(75) 500	정병욱 Family Fund	10,000

### GREEN PROJECT FUND

김은섭(59) 100	채규철(59) 200	이종성(60) 75	박종승(62) 100	이용길(62) 200
안연승(64) 250	이홍표(64) 100	허선행(64) 100	민발식(66) 100	차재철(68) 100
김병오(69) 100	배성호(71) 75	서인석(73) 10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박남훈(80) 175	남명호(81) 200	서귀숙(84) 100	박종철(99) 50	

### AASCDFT DONATION

김정아(76) 10,000 한승신(76) 10,000

**회비와 donation을 PayPal을 이용하여 내시는 회원들께서는 Fee를 포함한 금액을 내시어 동창회가 net금액으로 받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ayPal에서 은행 구좌로 옮기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없고, 일정 기간을 지나서 하게 되는데 Fee를 떼고 들어오므로 장부 정리에 고충이 많습니다.

## 농담 골목

오랫동안 연설이 끝나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쳤다. 그들중에는 그 연설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 (노용면)

젊은 청년이 나이 많은 부인을 보고 “삶이 즐겁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너희들 나이로 있을 때 보다 즐겁지 않은 것은 별로 없다. 즐거움은 자기 생각 나름이다.” (노용면)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2개월 만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가 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본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를 좋아 하시는 줄 알았더라면 1년 전에 낳은 아이도 데려올 걸 그랬군요.” (이덕승)

어떤 신참 변호사가 처음으로 개업을 시작했다. 손님을 기다리던 중 비서가 한 남자를 안내해 들어오자 그는 재빨리 전화통의 수화기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스케줄이 워낙 바빠서 앞으로 2개월간은 새로운 소송 건은 받아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2개월 후에 다시 전화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건은요?”

“용건이랄 것도 없지요.

뭐, 저는 그 고장 난 전화기를 수리하러 왔습니다만...” (이덕승)

오래전 내가 보스톤에서 수련 받던 시절, 그때에 내가 들은 Boston marathon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보스톤 마라톤 참가 자격은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한 50대 남자가 혹독한 훈련으로 간신히 출전 자격을 따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보스톤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열심히 훈련을 해 나갔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라고 마라톤 바로 이틀 전에 훈련 중 부상을 입어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했지만 일생에 한 번 율까 말까하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어 기어이 마라톤에 참가하고 말았다. 그날 26.2 mile의 기나긴 여정은 한 발짝 한 발짝 마다 고통의 연속이었고 통증은 극에 달했지만 오직 정신력 하나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그 자

리에 주저앉았다. 의료 텐트에 실려 온 그를 진찰한 젊은 의사가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발목뼈가 부러진 것 같으며 X-ray를 찍어 보자고 환자에게 말했다. 그런데 환자는 정색을 하고 그 젊은 의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X-ray를 찍을 필요는 없어! 뼈가 부러진 것은 확실하단 말야.” 이를 들은 의사는 화낸 어조로 “아니 당신은 의사도 아니고 아직 X-ray도 찍지 않았는데 발목이 부러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에 환자는 답답하다는 듯이 “이봐 젊은이, 내가 방사선과 의사인데 어제 사진을 직접 찍어 봤어. 골절이 분명히 있더라구” 이를 들은 젊은 의사는 하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태형)

### ♣ 유머보다 재미있는 유머!

한 사람이 낙천주의자에게 행복해지는 비법을 물었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친구를 잃는다면 그래도 행복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비록 친구는 잃었어도, 내 자신은 잃지 않았으니 행복하지요. 하하”  
 “그럼 길을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는데도 그렇게 웃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빠진곳은 깊은 연못이 아니라 고작 진흙탕이잖아요. 하하”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았을 뿐이잖아요. 칼로 맞은 것보다야 낫죠. 하하”

살다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밝아집니다. 긍정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을까요?  
 긍정이 최고의 유머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꿈은 인간이 갖는 모든 종류의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부정적인 생각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유머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공격적으로 이겨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유머는 긍정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놀랍도록 반전시키는 이런 긍정유머 하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신을 즐겁게 포지셔닝할 수 있는 유머입니다. (차동엽 신부가 쓴 “무지개 원리”에서 )